

기본연구 2017-05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Ⅲ**  
**- 계량·인지지표의 통합과 활용**  
Daejeon Gender Equality Index III  
- Application of Quantitative and Cognitive Indexes

주 혜 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기본연구 2017-05

##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Ⅲ

발행인 박재목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나은문화사 TEL 042-252-4103 FAX 042-252-410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2015년에 실시한 성평등 현황 파악 계량 지표와 2016년의 인지 지표 발굴 결과를 토대로 양 측면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포괄하는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발굴에 목적이 있음

##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비대면 델파이 기법을 응용하여 성평등 지표에 대한 지역 젠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 대전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70여명을 선정, 1차 개방형 설문조사와 1차 결과에 근거한 2차 조사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실시함
- 2차 조사에서 생성된 전문가들의 지표별 적절성과 중요성 동의 정도를 계량화하고 이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해 지표 설정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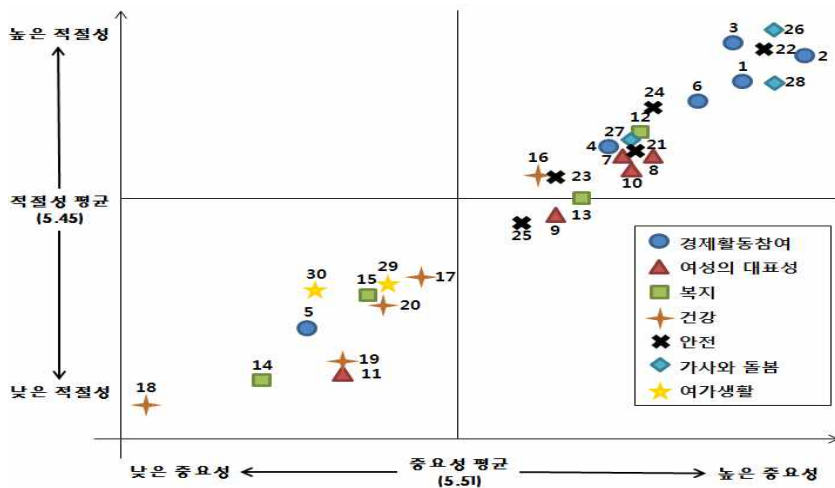
## ■ 연구결과

### □ 전문가 조사 개요

- 2017년 8월-9월 사이에 실시된 전문가 대상 1,2차 조사에는 각각 46명의 전문가가 참여함
- 1차 조사는 기존 지역 성평등 지표에 대한 수정 의견,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함
- 2차 조사는 분야별 세부 지표 항목의 중요도와 적절함 정도를 7점 척도로 표기함

## □ 전문가 조사 결과

- 경제활동분야 지표의 개선 의견으로는 노동기간, 비/정규직 성비, 일 자리 만족도 지표 등이 제안됨
- 의사결정분야 지표의 개선의견으로는 주요위원회 위촉직 성비, 지자체 산하 기관장 성비 등이 제안됨
- 복지분야 지표의 개선의견으로는 여성가구주가구의 현 기준중위소득 대비 도달률, 공적연금액의 성 격차 지표 등이 제안됨
- 보건분야 지표의 개선의견으로는 건강기대수명, 스트레스인지율 지표 등이 제안됨
- 안전분야 지표의 개선의견으로는 폭력피해 불안감, 공공안전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표 등이 제안됨
- 가족분야 지표의 개선의견으로는 가사와 돌봄 시간 성차, 성평등 인식의 성 격차, 가족친화제도 사용 지표 등이 제안됨
- 문화와 정보분야 지표의 개선의견으로는 문화여가활동 비용 성 격차, SNS 이용율 성차 지표 등이 제안됨
- IPA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적절성과 중요성 IPA 결과

## ■ 통합적 대전 성평등 지표 제안

분야	지표
경제활동참여	성별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비정규직 성비
	관리직 성비
여성의 대표성	광역 및 기초 의원 성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광역시 주요 상설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지자체 산하 기관장 성비
복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성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수명 성차
	스트레스 인지율 성차
안전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차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성폭력 재범률
	가정폭력 재범률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성차
성평등한 생활	가사노동시간 성차
	돌봄노동시간 성차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평등 인식 수준 성차
문화와 여가	여가·문화생활 향유 소비(비용) 성차

# 차 례

1장 서론 .....	3
1. 연구배경과 목적 .....	3
2. 연구절차와 연구방법 .....	5
2장 지역 성평등 지수와 지표 체계 검토 .....	11
1. 지역 성평등 지수의 의미와 지표 구성 .....	11
2. 지역 성평등 지수 활용 사례 .....	13
3. 대전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 분석 .....	16
3장 1·2차 연구 결과 검토 .....	23
1. 2015 계량지표의 특성 .....	23
2. 2016 인지지표의 특성 .....	33
4장 대전지역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	41
1. 조사개요 .....	41
2.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	43
3. 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 .....	54
4. 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 .....	66
5.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IPA 결과 .....	72
6. 기존 성평등 지표에 대한 총괄 의견 및 기타 제안 .....	77
5장 대전시 성평등 지표 제안 .....	81
참고문헌 .....	84



부 록

부록 1. 조사설문지 ..... 85

## 표 차례

[표 2-1]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	12
[표 3-1] 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 및 지수 산출의 특성 .....	27
[표 3-2] 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	29
[표 3-3] 2015 대전시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 분석 .....	32
[표 3-4] 2016 대전 성평등 지표-인지적 측면 발굴을 위한 설문구성 .....	35
[표 3-5] 2016 인지적 측면의 성평등 지표 발굴 조사의 시사점 .....	36
[표 3-6] 2016 인지적 측면 지표의 보완 .....	38
[표 4-1] 조사 설계 .....	41
[표 4-2] 조사 내용 .....	42
[표 4-3] 응답자(전문가)의 특성 .....	43
[표 4-4] 경제활동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45
[표 4-5] 경제활동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46
[표 4-6] 의사결정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47
[표 4-7] 의사결정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47
[표 4-8]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49
[표 4-9]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49
[표 4-10] 고용·임금격차·비정규직 비율 지표에 대한 평가 .....	50
[표 4-11] 근속기간·직업 만족도·관리직 지표에 대한 평가 .....	51
[표 4-12] 여성의원·고위직 공무원·기관장 성비 지표에 대한 평가 .....	52
[표 4-13] 위원회 성비·자치위원장 성비 지표에 대한 평가 .....	53
[표 4-14] 복지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55
[표 4-15] 복지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55
[표 4-16] 보건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57

[표 4-17] 보건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57
[표 4-18] 안전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59
[표 4-19] 안전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59
[표 4-20] 기초생활수급자·공적연금가입자 지표에 대한 평가 .....	60
[표 4-21] 고령자 가계부담·중위소득 지표에 대한 평가 .....	61
[표 4-22] 건강관련 삶의질·건강검진·건강기대수명 지표에 대한 평가 .....	62
[표 4-23] 자살률·행복감 지표에 대한 평가 .....	63
[표 4-24] 사회안전 인식·범죄피해 지표에 대한 평가 .....	64
[표 4-25] 성·가정폭력 재범률·범죄예방정책 만족도 지표에 대한 평가 .....	65
[표 4-26] 가족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67
[표 4-27] 가족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68
[표 4-28] 문화와 정보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	69
[표 4-29] 문화와 정보 분야 지표 추천 결과 .....	69
[표 4-30] 가사노동시간·육아휴직·성평등 인식수준 지표에 대한 평가 .....	70
[표 4-31] 여가시간·여가만족도 지표에 대한 평가 .....	71
[표 4-32] 적절성·중요성 평가 및 순위 .....	74
[표 5-1] 기존 지역성평등지수와 통합 대전시 성평등 지표 비교 .....	82

## 그림 차례

[그림 1-1] 3개년 연구의 진행 과정 .....	5
[그림 1-2] 연구 절차 .....	6
[그림 1-3] 델파이 기법 활용 과정 .....	7
[그림 2-1] 지역 성평등 지수 정보 제공 사례 .....	14

[그림 2-2] 2015년 기준 지역별 성평등 지수 개선 정도 .....	17
[그림 2-3] 대전시 지역 성평등 지수 분야별 현황 .....	17
[그림 2-4] 대전시 가족 분야 성평등 지수의 변화 .....	18
[그림 2-5] 대전시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의 변화 .....	19
[그림 3-1]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고려-연계 요소 .....	24
[그림 3-2] 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 과정 .....	25
[그림 3-3] 2015 대전 성평등 지수 산정 단계 및 원칙 .....	26
[그림 4-1] IPA 사분면 제시의 예 .....	72
[그림 4-2] 적절성과 중요성 IPA 결과 .....	75

# 1장

##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절차와 연구모형
3. 델파이 조사 설계



# 1장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지역 여성의 삶이 어떠한지 혹은 이 지역은 여성들이 살기에 좋은 곳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성평등 지표 개발은 출발했다. ‘현재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그 사회의 성평등함을 측정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 ‘성평등’을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성(gender, 性)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인지하고, 개인과 집단 차원의 차별적 행위와 구조적 관행·관습 등을 해소해 가려는 정치적 노력과 인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과 관련한 차별적 행위와 구조적 관행이 늘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만,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성 내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위’ 관련한 차별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남/여성성’ 혹은 ‘규범적인 남/여성성’에 근거한 집단 내 차별, 그리고 ‘성 그 자체에 대한 규범성에 근거한 차별’ 역시 해소해야 할 성불평등한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성평등 지표가 포괄해야 할 범위가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근거한 구조적 불평등함 혹은 불평등한 증거들에만 그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구조적 불평등(신경아, 2016: 3)”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된 바이며), 양 성간의 관계와 그로인한 불평등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지적과 개선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성과 관련한 다양한 차별적 관행과 억압, 불평등한 제도들을 제외한다기 보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여성과 남성 간에 있어왔던 구조적 불평등함에 주목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지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여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질은 어떠한지,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지표들을 찾아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에 실시한 성평등 현황 파악을 위한 계량 지표와 2016년에 실시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성평등 현황 지표 발굴 결과를 토대로 양 측면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포괄하는 지역 성평등 지표 발굴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역 성평등 지수(Regional Equality Gender Index)’ 를 발표해 오고 있다. 개별 지역사회의 성평등 실태와 원인 파악 그리고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는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와 비교에 근거한 개선 항목 도출에는 주효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가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이나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찾고, 지역 여성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지역 여성의 삶에 근거한 성평등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평등 지표를 찾고 살펴보는 과정을 지역 여성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수많은 지표들 중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표는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지역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두 번에 걸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요하면서도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표들을 의견에 근거해 선정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현재 여성가족부의 대전시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 성평등 지표 체계와 2015년 및 2016년에 추진한 대전지역 성평등 현황 파악을 위한 계량 및 인지 지표 체계를 점검한다. 둘째, 계량적 지표와 인지적 지표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델파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젠더 전문가들로부터 지역 성평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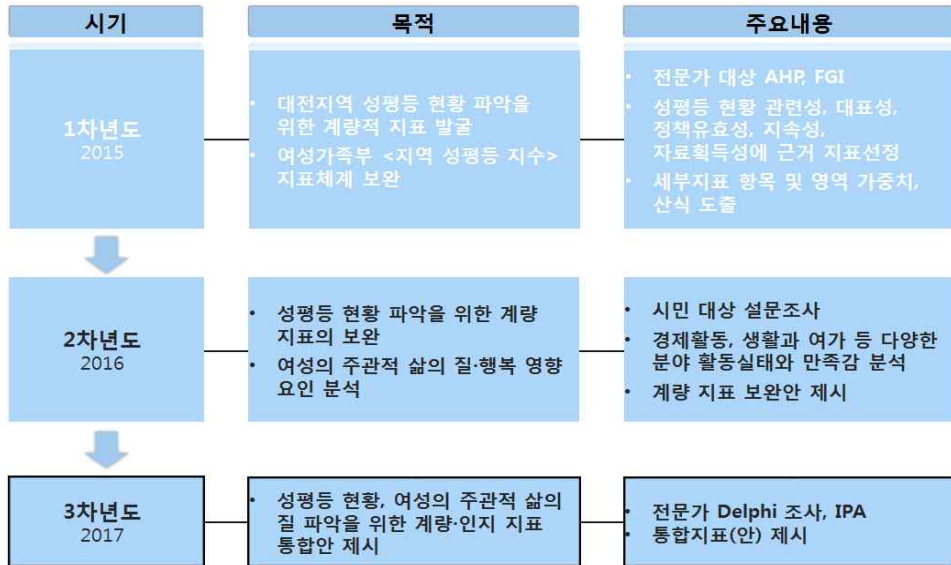


체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지표 항목의 중요성과 적절성에 기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가능한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체계를 제안한다.

## 2. 연구절차와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시행된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3개년 연구의 진행 과정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현황을 검토하고 이 지표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는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적절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시도도 있다. 본 연구는 타 시도의 활용 및 검토 현황을 파악하고, 대전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도 다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2회에 걸쳐 시행하고, 타 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적절하고 중요한 성평등 지표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의 [그림 1-2]로 요약된다.

추진 단계	항목	내용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료 분석</li> <li>▪ 통계자료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및 지표 관련 현황 분석</li> <li>▪ 대전시 여성가족 현황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시도의 성평등 지표 활용 사례 검토</li> <li>▪ 1,2차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발굴 연구 결과 검토</li> </ul>
전문가 델파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역 젠더 전문가(연구자, 여성 및 가족 지원 기관 종사자, 단체 활동가 등) 대상</li> <li>▪ 성평등 지표 분야와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전문가 집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역 전문가와의 연구 결과 공유</li> <li>▪ 타 시도 사례 공유 및 성평등 지표 도출에 대한 자문</li> </ul>
성평등 지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결과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성평등 지표의 개선</li> <li>▪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제안 및 관리 방안 제시</li> </ul>

[그림 1-2] 연구 절차

## 2) 델파이 조사 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델파이 기법을 응용하여 성평등 지표에 대한 지역 젠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대면 방식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할 기회가 없고, 따라서 의견 수렴이 조사 시 제출한 결과물을 정량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익명의 개인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다수의 지역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 내 의견을 제출해 수렴하여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 심층적 토론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있고, 익명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요인이 토론에 작용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특정인의 의견 수렴 과정 장악 가능성을 방지하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연구자가 최대한 조율하는 가운데 개별 참가자에게 정리된 의견이 피드백되는 델파이 기법의 장점(박경준, 2008)을 최대한 활용했다.

본 연구의 델파이 기법 활용 과정은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델파이 기법 활용 과정

2차에 걸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거한 설문지는 코딩 후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비롯한 기술통계를 실시했고, 개별 지표에 대한 중요성과 적절성의 평균값을 근거로 IPA를 실시하여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의 구조를 규명하고 지표설정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강명훈 · 송혜승 · 이명훈, 2017)하고자 했다.

## 2장

# 지역 성평등 지수와 지표 체계 검토

1. 지역 성평등 지수의 의미와 지표 구성
2. 지역 성평등 지수 활용 사례
3. 대전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 분석



## 2장 지역 성평등 지수와 지표 체계 검토

### 1. 지역 성평등 지수의 의미와 지표 구성

2011년 처음 개발된 지역 성평등 지수는 일정한 지표 체계를 근거로 지역 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정치와 경제 복지 등 여러 사회 분야에서 여성문제(젠더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성평등 지수의 산출 목적을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특성과 취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보다 나은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과 특화된 지역 정책 발굴에 두고 있다(주재선 외, 2016).

무엇보다도 지역 성평등 지수의 산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지표로 산출된 시도 성평등 지수는 시도가 성평등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지역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똑같이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2011년 4개 영역 17개 지표와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가점영역으로 구성”되었던 성평등 지표는(주재선 외, 2016: 3) 2016년 12월 현재, 3개의 정책영역과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2-1] 참조).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역의 성평등 현황 즉 결과(outcomes)를 측정하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지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각 기준별 여성과 남성의 ‘차이(gap)’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 혹은 격차란 임금, 교육 수준 등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른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별 항목 당 남성과 여성이 가진 값의 차이(difference) 혹은 비(ratio)를 활용한다.

**[표 2-1]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정책 영역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비율
	교육과 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성의 인권과 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과 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문화와 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지역 성평등 지수의 최종 목적, 이상(ideal)은 성평등한 상황에서의 도달 혹은 “성평등 달성”에 있다(주재선 외, 2016: 25). ‘무엇을 성평등한 상황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다. 학자마다 개인마다 성평등한 상황 혹은 성평등 달성은 다른 그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UNDP 등 다른 국제 기구의 성평등 지수 및 여러 성평등 지수들도 유사하게)는 ‘성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주재선 외, 2016: 26). 여성과 남성의 위치 차이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 달성은 이 차이를 좁히는 것, 즉 성평등한 상황이란 남성의



성과와 여성의 성과 간 격차가 줄어든 상황을 의미하며,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 체계는 지표별로 남성의 위치 혹은 남성이 이룬 성과를 여성이 얼마나 따라잡느냐 혹은 어떻게 남성의 위치에 똑같이 도달하느냐에 주목한다.

과연 여성가족부가 주목하는 성평등한 상황, 즉 ‘여성이 도달해야 할 남성의 위치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성평등이 ‘균등 equality’을 지향하는가 또는 ‘다양성 diversity’을 지향하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균등과 다양성을 대척점에 둔 성평등 논의는 생산적이지 않다. 본 연구가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지점은 이 지표체계가 “표준화된 근대적 남성의 생애주기 과제(배은경, 2015)”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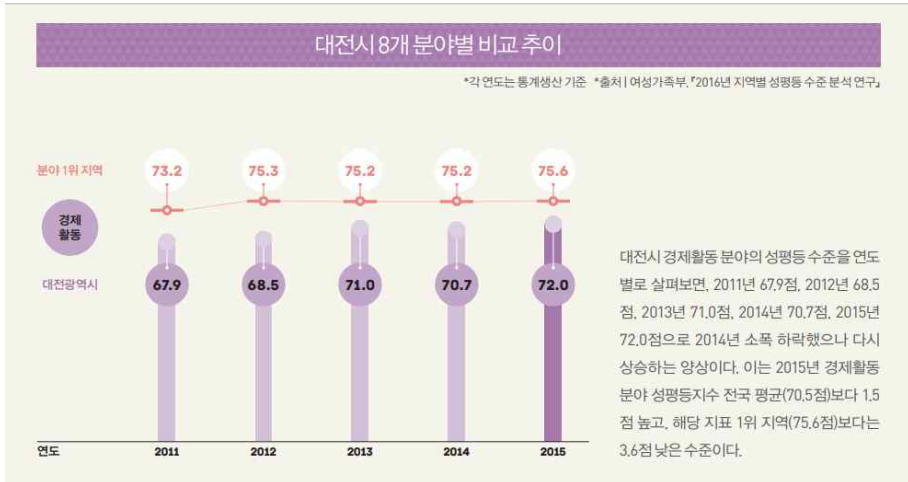
기존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남성의 삶이, 사실 여성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층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1인 부양체계에서 부양자가 된 남성의 삶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성평등 자체가 복합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때, 달성 가능한 지점이 ‘어떤 남성의 삶’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를 통한 성평등 달성 역시 다양한 여성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는 지역 여성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청취하여 그에 근거해 구성될 필요가 있다.

## 2. 지역 성평등 지수 활용 사례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는 각 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역 여성의 삶이나 성평등 현황을 알리는 정보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각종 Newsletter나 Brief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들을 성평등 지수 산

출 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아래 [그림 2-1]은 대전시 출연 기관인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발행하는 웹매거진 Brief에 실린 성평등 지수 현황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출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제63호(2017. 3. 31)

### [그림 2-1] 지역 성평등 지수 정보 제공 사례

또한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계획이나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과 핵심 전략 분야 결정 등에 중요하게 활용돼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들은 분야별로 산출된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고 지수 값의 변화를 점검하고 변화 원인을 파악하여 지수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민말순(2012)은 경남도의 지역 성평등 지수가 종합적으로 연속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영역별 세부 지표의 산출 지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지 분석했다. 경남의 성평등 수준 제고 전략을 민말순(2012)은 상대비교를 통해 취약한 지표와 절대 수준을 올려야 하는 지표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지수의 절대 값이 양호하게 나온 영역과 세부지표는 지속적으로 양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절대 값 자체가 낮은 지표들은 상대 비교와 별도로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는 지표들이므로 더욱 큰 관심과 개선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성평등 지수 결과를 상세 분석하고 그 의미를 여성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 수요 및 추진과 연관시키는 연구들도 있다. 광주시가 수립한 양성평등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지역 성평등 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양성평등 기본계획 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고보혜·이효빈, 2016)이다. 광주의 경우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 성평등 지수 결과를 영역과 세부 지표 별로 상세 분석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세부 지표를 선별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지수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기도 한 것이 ‘성평등 지수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소과제인 여성창업 및 사회적경제분야 진출 지원 등을 연계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와 기관을 명시한 뒤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식으로 성평등 지수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성평등 지수 영역에 속하는 정책 사업들을 상세히 점검하고 각 사업들이 진행되는 방식과 내용이 성평등 지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박영주 외, 2015). 박영주 외(2015)의 연구는 대구 지역의 성평등 실태를 진단하고 성평등 지수의 향상, 즉 성평등 상태의 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보다 정확히 세우기 위해 시민 대상 실태 조사를 진행한 특징이 있다.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과 복지, 성평등한 의식 등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고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 만족도 그리고 요구도를 측정했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해낸 성평등 지수 결과와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최대한 파악하여 성평등 상태를 개선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성평등 지수와 성평등 현황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연계한 연구는 홍미희(2014)의 사례에도 나타나고 있다. 홍미희(2014)는 인천 지역의 ‘성불평등한 현실’을 시민 의식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성평등 지표 개발에의 함의를 이끌어 냈다. 홍미희(2014)는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근거해 각 영역별로 인천 시민이 과연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시민들의 영역 관련한 성평등한 의식은 어떠한지 분석하고 있다. 홍미희(2014)는 연구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로, 성평등 지표 중 지수 값이 낮은 지표들은 중점 관리하되, 객관적 지표의 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의 정책 수혜자 집단이면서 담론을 생성하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한 성평등 지수 향상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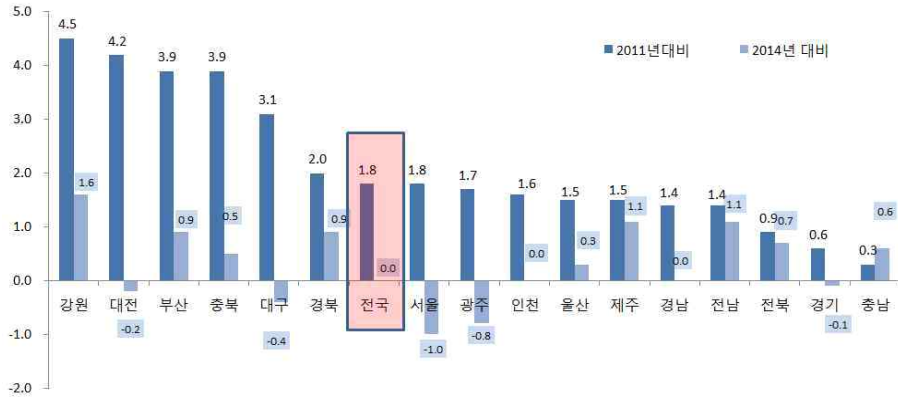
홍미영 외(2016)는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 결과를 간략히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지표 적용의 적절성 점검과 성평등 현황 개선을 위한 지표 제안을 수렴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 지표 체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나, 보다 정확한 부산시의 성평등 현황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홍미영(2016)도 지역 성평등 지수를 활용하는 최종 목적은 지수와 양성평등종합계획의 시행과제들과의 연계에 근거하여 세부 사업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 3. 대전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 분석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에서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100.0으로 표준화된 성평등 지수 값은 16개 시도를 ‘성평등 상위지역’ 과 ‘중상위지역’, ‘중하위지역’, ‘하위지역’ 으로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지역성평등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시는 성평등 수준 상위지역이다. 서울시와 함께 대전시는 2011년 이래 줄곧 상위지역으로 구분돼,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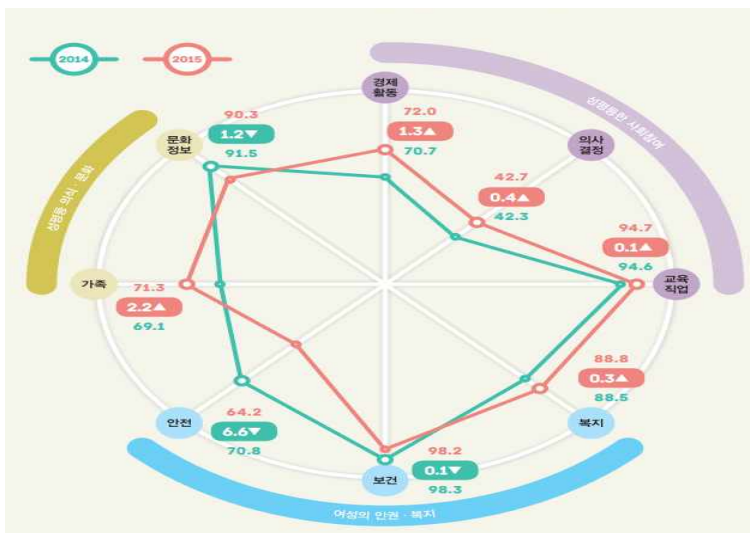
아래 [그림 2-2]는 2011년과 2014년 대비 성평등 지수가 어떻게 개선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성평등 수준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대전시는 2011년 대비 4.2포인트 상승했으나, 2014년 대비 0.2포인트 악화(성평등 수준이 하락)됐다.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주재선 외, 2016: 31)

### [그림 2-2] 2015년 기준 지역별 성평등 지수 개선 정도

2014년과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8개 분야 성평등 지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비교한 다음 [그림 2-3]은 어떤 분야에서 대전의 성평등 지수가 악화됐거나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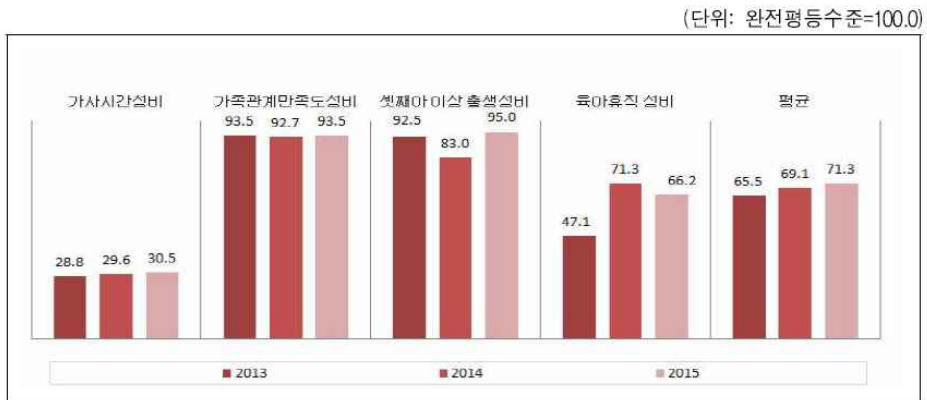


출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제63호(2017. 3. 31)

### [그림 2-3] 대전시 지역 성평등 지수 분야별 현황

성평등 지수가 상승한 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성평등 지수는 70.7에서 72.0으로 1.3포인트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이나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에서도 성평등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지수가 0.3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가족분야는 2.2포인트가 상승해 가장 큰 상승의 폭을 보였다. 그러나 안전분야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시간 성비와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로 구성된 가족분야 성평등 지수의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주채선 외, 2016: 93)

**[그림 2-4] 대전시 가족 분야 성평등 지수의 변화**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꾸준히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주관적 지표가 지닌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지표는 2014년 출생 성비가 120.5를 보여, 성평등 지수 값의 큰 하락을 가져왔었으나, 2015년 105.2로 평균 성비 수준을 회복했다. 육아휴직 성비 지표는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크게 좋아졌다가, 2015년에 다소 하락한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족 관련한 성평등 지표의 측정 결과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평등 지수가 하락한 분야는 보건과 문화정보 분야 그리고 안전인데, 특히 안전 분야의 성평등 지수 하락의 폭이 크다. 2015년 통계에 근거한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는 64.2로 전국 평균인 65.2보다도 낮고, 안전 분야 1위 지역의 78.4보다는 14.2포인트나 낮다.

아래 [그림 2-5]는 안전 분야 세부 지표별 성평등 지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주재선 외, 2016: 92)

### [그림 2-5] 대전시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의 변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의 점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3년 간 점수 변화의 폭인 63.7점에서 65.3점, 62.8점으로 다소 상승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지표’는 최근 3년 간 74.3에서 76.4로 상승했다가 62.8로 크게 하락했다. 이 분야 성평등 지수 산출의 근거가 된 원자료를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 여성의 비율이 84.6%에서 86.1%로, 그리고 2015년 통계에는 8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피해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5년 조사 당시에는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나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3장

### 1·2차 연구 결과 검토

1. 2015 계량지표의 특성
2. 2016 인지지표의 특성





## 3장 1·2차 연구 결과 검토

### 1. 2015 계량지표의 특성

#### 1) 계량지표 발굴과 개선의 목적

동일한 지표의 적용은 지역 간 상대비교가 가능하고, 지역 내에서도 매년 변화 추이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늘 지적돼 왔다. 광역시와 광역도 삶의 특징, 농촌과 도시, 1차 산업 중심 지역과 지식기술 산업 중심 지역의 특성과 그 고유함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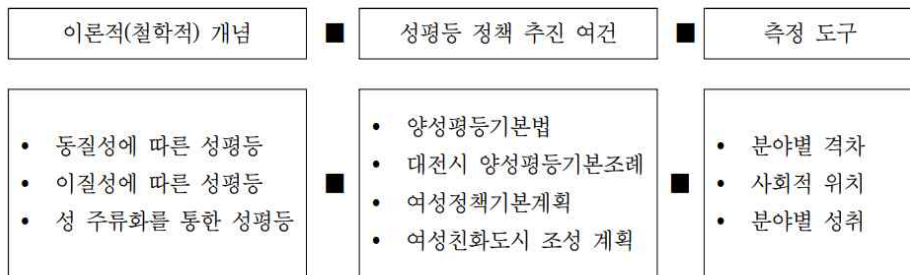
또한 ‘여성 단체장 비율’ 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자체 노력을 통한 성평등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평등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 성평등 지표의 발굴과 선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역 성평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존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2015년에 시행된 대전시 성평등 지수 산출을 위한 계량적 지표 체계 발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 주요 성평등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지표와 영역의 발굴
- 대전지역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성평등 지표와 영역의 발굴 및 선정
- 대전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성평등 지표의 제시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평등 영역 및 지표, 지수 산출 방식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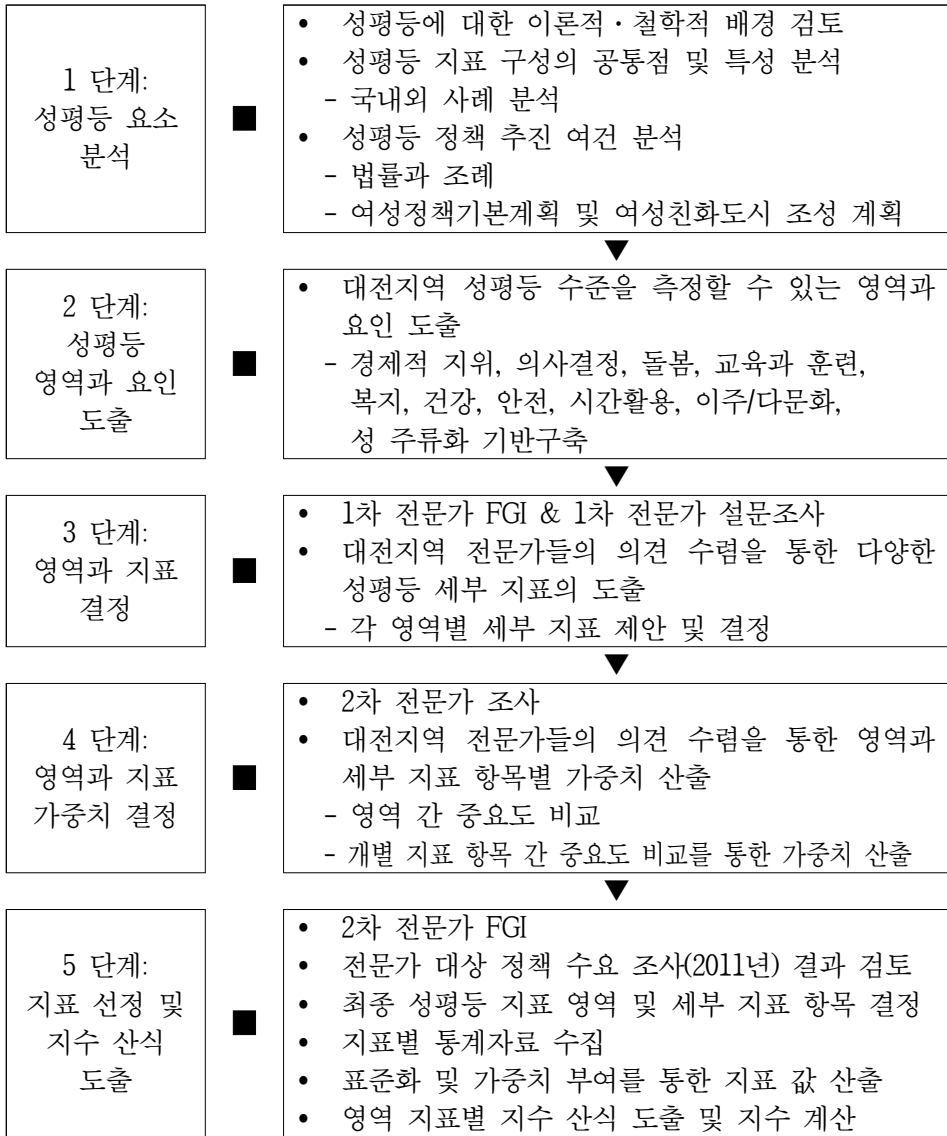
대전시 성평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은 “성평등이 무엇이고, 어떠한 상태를 지향하는가 하는 이론적(철학적) 개념과 법률 등 정책 추진의 여건, 그리고 이들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측정 도구 혹은 대상들을 연계하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지표 개발을 위한 고려 및 연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주혜진, 2015: 41).



출처: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주혜진, 2015: 41)

### [그림 3-1]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고려-연계 요소

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의 개발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쳤다.([그림 3-2] 참조)



출처: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주혜진, 2015: 43)

**[그림 3-2] 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 과정**

성평등 지수 산출을 위한 계량적 지표 값의 산정 단계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p>자료의 기준 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생산되는 자료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함</li> <li>• 일정 주기에 따라 생산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함</li> </ul>
<p>지표 값의 성비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지표는 성비(sex ratio)로 전환하여 성별 격차 값 산출</li> <li>•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li> <li>• 성비는 대부분 남성을 분모로 여성을 분자로 하여 산정<sup>1)</sup></li> </ul>
<p>표준화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가 높을수록 성평등에 부정적인 지표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범죄 피해 건수 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등</li> </ul> </li> <li>• 수준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표준화 적용</li> </ul>
<p>가중치<sup>2)</sup>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 대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표 보정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li> <li>-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전체 공무원 성비 역수</li> </ul> </li> <li>•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해 성평등 현황 파악에 있어 더 중요한 영역을 강조</li> <li>• 전문가 AHP 결과 활용</li> </ul>

출처: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주혜진, 2015: 44)

### [그림 3-3] 2015 대전 성평등 지수 산정 단계 및 원칙

- 1) 성비의 분모를 남성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주재선 외, 2014).
- 2) 지역 성평등지수 산출의 경우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대비 개별 지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정이 몇 가지 더 활용됐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는 대전시 단일, 절대 비교이기 때문에 고급 공무원과 상근근로자의 경우 정도만 모집단 대비 현황을 보정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 2) 계량지표 수정 제안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 방법)를 통한 지표 영역 선정과 영역별 세부 항목의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계량적 차원에서의 대전 성평등 지표는 지표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지표의 값을 구하는 방식을 달리했다. 완전 평등 상태(기준점)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주는 지수를 산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를 적용해 공식을 도출했다.

계량적인 대전시 성평등 지수 산출 지표 체계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 및 지수 산출의 특성

성평등 지표 영역	세부 지표 항목	가중치 적용 사항
건강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유지활동 시간</li> <li>건강검진수검률</li> <li>여가시간</li> <li>강력범죄 위험도</li> <li>성폭력 피해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 0.264</li> <li>강력범죄 위험도는 성별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근거로 하되 역수를 취함. 완전 평등의 수준(minimum)을 0명으로, 완전 불평등의 수준(maximum)을 6대 광역시 중 최고치 참고<sup>3)</sup></li> <li>피해자 지원 시설은 10만 명 당 시설 수를 성범죄 위험도에 가중치로 적용</li> </ul>
의사결정과 성 주류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li> <li>관리자 비율</li> <li>5급 이상 여성 공무원</li> <li>시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 0.188</li> <li>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는 여성정책담당자(성주류화 제도 추진, 폭력피해지원, 일자리 지원 담당자 등 포함)를 의미하며, 전체 공무원 대비 성평등 정책 담당 공무원의 비율임. min 값은 0명 이나, max 값은 6대 광역시 중 최대 비율에 1,000을 곱한 값임.</li> <li>관리자, 공무원, 위원회 등은 대 상 남녀 인구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적용</li> </ul>

성평등 지표 영역	세부 지표 항목	가중치 적용 사항
가구와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노동 시간</li> <li>육아휴직 현황</li> <li>다양한 보육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 0.148</li> <li>가사노동시간은 동일 취업률을 가정하며, 취업자의 경우에 한정하고, 남성 대비 여성의 가사 시간의 역수를 계산함.</li> <li>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시설 비율의 완전 평등한 수준은 50%를 임의 설정함.</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연금가입자 현황</li> <li>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 0.147</li> <li>연금가입자의 경우, 적용대상 인구비의 역수</li> <li>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6대 광역시 수준과 비교하여 min 값과 max 값 설정</li> </ul>
경제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용근로자 비율</li> <li>경력단절 비율</li> <li>경제활동참가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 0.135</li> <li>‘경력단절여성’은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여성으로 결혼, 임신·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함<sup>4)</sup>.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기혼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의미함.</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기관 진학률</li> <li>교육년수</li> <li>중등교육 중단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 0.119</li> <li>중등교육 중단자 성비의 역수</li> </ul>

출처: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주혜진, 2015: 90)

3)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는 ‘강력범죄피해자’를 성평등 지표로 선정하고 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완전 평등 수준을 피해자 0명으로 두고 있다. 완전 불평등 수준은 조사 대상 기간 (약 5년 간) 중 인구 10만 명 당 발생한 여성피해자 수를 고려해 설정한다. 2007년~2012년 사이 여성 피해자의 수가 인구 10만 명 당 최소 51명에서 최대 123명까지 나타나고 있어, 최대치를 임의로 150으로 설정했다(주재선 외 2014).

4) 통계청(2014), 「(보도자료 2014. 11. 26)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통계」.

[표 3-2] 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영역과 지표	지표 계산 방법	계산 산식
<b>건강과 안전</b>		
건강유지활동	개인 유지 시간(건강 유지 활동 포함된 시간) 성비	$X = [ HF / HM ]$
건강검진수검률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X = [ F / M ]$
여가시간	여가 시간 성비	$X = [ EF / EM ]$
강력범죄 위험도	남녀의 수준 격차를 함께 고려한 점수(인구 비율로 조정)	$X = [ pf(S_f)^{-1} + pm(S_m)^{-1} ]^{-1}$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 - x}{Max(x) - Min(x)}$
성폭력피해자 지원	인구 10만 명 당 지원 시설의 수	$X = [ AS / 15 ]$ (대전시 인구를 150만 명이라 가정함)
<b>의사결정과 성 주류화 기반 구축</b>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여성정책종합계획, 성 주류화 제도 추진, 여성폭력방지, 여성일자리 사업 담당자 등	$S_o = \frac{x - Min(x)}{Max(x) - Min(x)}$
관리자	관리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위원회 참여	여성 위원 비율	$X = [ F / M ]$
<b>가구와 가족</b>		
가사노동시간	취업자의 가사시간 성비 역수	$X = 1 / [ LF / LM ]$
육아휴직	육아휴직자 성비	$X = [ M / F ]$
다양한 보육 서비스	영아전담, 시간제, 시간연장형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비율	$X = [ SD / ( AD \times 0.5 )$
<b>복지</b>		
공적연금가입자		$X = W\_m/f \times [ F / M ]$



영역과 지표	지표 계산 방법	계산 산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남녀의 수준 격차를 함께 고려한 점수(인구 비율로 조정)	$X = [pf(S_f)^{-1} + pm(S_m)^{-1}]^{-1}$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 - x}{Max(x) - Min(x)}$
<b>경제적 지위</b>		
상용근로자	대상 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상용근로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경력단절비율	비취업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	$X = 1 - [ FCD / FUP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X = [ F / M ]$
<b>교육</b>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X = [ F / M ]$
교육연수	평균 교육연수의 성비	$X = [ F / M ]$
중등교육 중단 비율	중등교육 중단자 성비	$X = [pf(S_f)^{-1} + pm(S_m)^{-1}]^{-1}$ 여기서, $S_f$ or $S_m = \frac{Max(x) - x}{Max(x) - Min(x)}$

위 산식에 근거해 각 지표별 성평등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과 안전영역, 의사결정과 성 주류화 기반 구축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성평등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나 교육과 훈련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복지 및 가구와 가족 영역은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구에서 지표별 지수 산출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수를 산출하고 지수를 계산한 이유가 단순히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 통계 자료로 파악되는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황이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이 결과만을 가지고 대전지역의 성평등 전체를 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혹은 연구의 한계 인식이 있었다.

성평등 지수 산출의 결과를 가장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관리 및 중점 관리가 필요한 영역과 지표”를 파악해 그 원인을 고민해 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매년 지수 산출을 통해 개선 여부와 개선 정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주혜진, 2015: 96).

2015년 계량적 성평등 지수의 산출 결과를 근거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 및 그 영역”과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표 및 그 영역”을 기준으로 세부 지표들을 나누고, 그 의미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 2015 대전시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 분석

구 분	영 역	분석 결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과 안전</li> <li>• 의사결정과정 주류화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유지활동’ ‘건강검진수검률’ ‘여가시간’ 지표는 남녀 간 격차가 적고, 양호한 성평등 상태에 가까움.</li> <li>• ‘강력범죄 위험도’가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li> <li>• ‘강력범죄 위험도’는 6대 광역시와의 비교에서 가장 상황이 나쁜 광주보다는 양호하지만 가장 양호하지는 않음.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li> <li>•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수가 늘어난다면 가중치로 적용되어 ‘강력범죄 위험도’가 개선될 수 있음.</li> <li>• ‘관리직 근로자’ 지표가 가장 양호함.</li> <li>•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지표는 6대 광역시와의 비교에서 양호한 편이나, 가장 우수하지는 않음.</li> <li>• 특히 영역 내 가장 점수가 낮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수’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ul>
중점 관리가 필요한 영역과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li> <li>• 가구와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가입자비율’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복지 영역 지수가 중간 수준을 유지함.</li> <li>•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지표는 6대 광역시와의 비교에서 최저 수준은 아니나, 가장 양호한 수준도 아닌 것으로 나타남.</li> <li>• ‘가사 노동 시간’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표가 중간 정도의 지수 수준을 보인 반면, ‘육아 휴직’ 지표가 매우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임.</li> <li>• 남성 육아휴직자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음. 보정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조정해 지수를 낼 수 있으나, 지향해야할 목표가 여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남성육아휴직비율이라면 이대로 두고 중점 관리할 필요 있음.</li> </ul>
기타 지표 관리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지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지표값을 보인 지표는 ‘여성경력단절비율’임. 여성경력단절비율 지표값이 중간 수준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 영역 지수 평균이 다소 하락함.</li> <li>• 여성경력단절의 예방과 경력 복귀 여성 지원에 대한 강화를 통해 본 지표를 관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li>• ‘중등교육중단비율’ 지표값이 낮아 교육 영역 총괄 지수 평균이 하락함. 6대 광역시와의 비교에서 대전의 중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출국” 비율도 중단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함. 본 지표를 대체해 청소년 탈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 지표 요구됨.</li> </ul>

## 2. 2016 인지지표의 특성

### 1) 인지지표 발굴과 개선의 목적

계량적 성평등 지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량적 지표들은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격차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고, 마치 남성의 삶이 여성에게 ‘준거’가 되는 지표의 한계를 보였다. 삶의 변화와 이를 체감하는 여성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량적 지표의 한계가 큰 것이다.

객관적 통계에 근거한 여성의 삶 측정, 성평등 측정과 더불어 여성의 주관적 견해, 특히 삶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16년도 연구는 출발했다. 인지지표는 대전지역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감에 미치는 객관적 변인들을 발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하면 좋을지를 고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의 보완으로서, 대전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한 결과에 근거해 성평등 지표 보완 안을 제시하고자 한 2016년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의 행복감(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성별 비교, 성별 차이점 발견
- 여성의 행복감(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 탐색 및 영향 요인 간 관계 분석
- 여성의 행복감(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약 분석 및 제약 요인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될 때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예측
- 여성의 행복감(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예측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인지적 측면의 성평등 지표 개선 방안 제시

인지적 측면에서의 ‘2016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의 최종 목적은 기존의 계량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의 발굴에 있기 때문에, 대전 여성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 문항은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영역과 분야를 고려했다.

성평등 가치관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대전 여성의 삶에 대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4] 2016 대전 성평등 지표-인지적 측면 발굴을 위한 설문구성

지역 성평등 지수 영역	독립변수 분야	변수 설명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p>내 일자리는 안정적이다</p> <p>나는 내 수입에 만족한다</p> <p>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p> <p>나는 최근 이직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p> <p>내가 노력하면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p>
	의사결정 과 사회참여	<p>나는 직장,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은 잘 반영되고 있다</p> <p>나는 국가 및 지역,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참여한다</p> <p>나는 동네일이나 지역사회(대전시) 일에 관심이 많다</p> <p>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종교, 동호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p> <p>나는 외롭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 등이 있다</p> <p>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한다</p>
	교육 · 직업훈련	<p>나는 더 배우고 싶다(고등교육기관 진학, 학위취득, 평생교육 등)</p> <p>나는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았다(초, 중, 고, 대학교)</p> <p>내가 원하는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건이 된다</p> <p>나는 최근 참여한 교육프로그램(직무관련, 자기개발 등)에 만족한다</p>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p>나는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p>
	보건	<p>나는 자주 우울하다</p> <p>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검진을 받고 있다</p> <p>나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출한다 (유기농, 건강식품, 운동 등)</p> <p>나는 일상생활을 혼자 불편 없이 할 수 있다</p>
	안전	<p>나는 인적이 뜬 시간(장소)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p> <p>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하다</p> <p>나 또는 주변사람이 성범죄(희롱, 추행, 폭력 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p> <p>나는 위험(재해, 범죄 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p> <p>나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안하다</p>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p>나는 하루에 보통 _시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돌본다</p> <p>나는 하루에 보통 _시간 집안일을 한다</p> <p>나는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p> <p>나는 가족들과 대화 및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p>
	문화 및 정보	<p>나는 여가 및 문화 향유를 하고 있다(문화행사, 공연, 강좌 등)</p> <p>나는 필요한 공공 정보(복지서비스 정보 등)를 잘 알고 있다</p> <p>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p>
성평등 가치관	성역할 고정관념	<p>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나는 조직의 책임자나 리더는 남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나는 맞벌이라도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한다</p> <p>나는 현재 남녀 간 지위차이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p>

## 2) 인지지표 수정 제안 결과

2016년 수행된 인지적 측면에서의 성평등 지표 개발은 대전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떠한 생각(행복)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며,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행복감 혹은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 지표로 제안하고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 조사 결과는 대전시 성평등 지표의 발굴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었다.

[표 3-5] 2016 인지적 측면의 성평등 지표 발굴 조사의 시사점

기존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의한 구분	내 용
행복, 주관적 삶에 질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 남성의 행복은 그 정도의 차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li> <li>• 기초자치구 간 행복감에 따른 동서격차가 있음.</li> <li>• 비정규직의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감이 정규상근직과 뚜렷하게 차이남.</li> <li>• 여성에게 있어 연령(나이들)은 행복의 증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남성은 나이 들수록 행복감이 감소할 수 있음.</li> </ul>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은 남성보다 일자리가 덜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음.</li> <li>• 경제활동(안정성, 소득, 일에 대한 만족감, 승진 등) 전반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은 삶의 질·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침.</li> <li>• 여성이 (남성수준만큼) 행복하려면, 경제활동(안정성, 소득, 일에 대한 만족감, 승진 등)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도록 지원해야 함.</li> <li>✓ 특히, 여성의 관리자급 승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li> </ul>
의사결정과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음.</li> <li>• 남성에게도 지역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일은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음.</li> <li>✓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활동 기회 다각화 노력이 요구됨.</li> </ul>
교육·직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정도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li> <li>• 평생교육이나 진학에 대한 열망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li> <li>✓ 교육지원정책의 다각화와 심화를 모색해야 함.</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1인가구는 남성과 달리 1인 가구라는 점이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줌.</li> <li>✓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요구 파악이 필요한 시점임.</li> </ul>

기존 성평등 지표 체계에 의한 구분	내 용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와 활동정도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li> <li>• 여성은 남성보다 더 우울하며,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정도도 남성보다 낮음.</li> <li>✓ 검진비율 등도 중요하지만 우울감 등 정서적 건강의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에서 느껴지는 안전은 성별격차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임.</li> <li>✓ 성평등 정책이나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들이 안전사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의 경우에서만 배우자 및 자녀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근거한 가족생활이 남성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함.</li> <li>•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일하는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li> <li>•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일하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li> <li>• 돌봄시간의 증가는 일하는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li> <li>✓ 돌봄과 가사를 정책적으로 분리해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li> <li>✓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를 좁히는 지원이 필요함.</li> </ul>
문화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생활·여가에 대한 만족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li> <li>• 공공정보 등 각종 정보획득역량은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li> <li>✓ 여가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li> </ul>
성역할 가치관 (성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행복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li> <li>• 여성들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순응 혹은 자기정당화 전략을 통한 심리적 안정 추구를 시사하며 추후 연계 연구가 필요함.</li> </ul>

대전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기존 계량적 성평등 지표,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표 보완을 위한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표 3-6] 2016 인지적 측면 지표의 보완

정책 영역	분 야	계량적 지표	보완 지표 (주관적 지표 포함)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참가율</li> <li>성별 임금 격차</li> <li>상용근로자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 안정성에 대한 견해</li> </ul>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li> <li>5급 이상 공무원 비율</li> <li>관리직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li> </ul>
	교육·직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균 교육년수</li> <li>고등교육기관 진학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만족도</li> </ul>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 비율</li> <li>공적연금 가입자의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관계 형성 현황(네트워크) 분석</li> </ul>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관련 삶의 질(EQ-5D)</li> <li>건강검진 수검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울감</li> <li>다양한 건강유지 활동 비용 및 시간 분석</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li> <li>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 비율 격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 정책 체감 현황 혹은 만족도</li> </ul>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노동시간</li> <li>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li> <li>가족관계 만족도</li> <li>육아휴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 시간과 가사 시간의 분리 측정</li> <li>가족 간 교류 시간 및 방법 측정</li> </ul>
	문화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시간</li> <li>여가시간 만족도</li> <li>인터넷 이용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및 문화 활동 비용</li> <li>정보 접근 정도 측정</li> <li>정보접근 체감도(만족도)</li> </ul>

## 4장

# 대전지역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1. 조사개요
2.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3. 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
4. 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
5.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IPA 결과
6. 기존 성평등 지표에 대한 총괄 의견 및  
기타 제안





# 4장 대전지역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전문가 조사는 대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대전지역의 성평등 실태와 현안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서부터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온 지역 전문가 조사를 통해 대전 성평등 지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2) 조사 설계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조사는 다음과 같은 진행 과정을 거쳤다.

[표 4-1] 조사 설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모집단	대전시 분야별 전문가 70여명	대전시 분야별 전문가 70여명
조사기간	2017년 8월 25일 ~ 9월 6일	2017년 9월 14일 ~ 9월 27일
표본수 (최종 참여자)	46명	46명
조사방법	온라인(이메일) 및 모바일(문자메시지) 조사	온라인(이메일) 및 모바일(문자메시지) 조사

### 3) 조사내용

온라인과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전문가 조사는 첫째, 대전지역 성평등 수준과 기존 지표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필요한 지표에 대한 추천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했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첫 번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각 분야의 개발 지표 항목에 대한 중요성과 적절성을 계량적으로 표현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회에 걸쳐 수행된 전문가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1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지역 성평등 지표에 대한 수정 의견</li> <li>▪ 기존 지역 성평등 지표 중 없는 지표 항목 추천</li> <li>▪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제안</li> <li>▪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와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지표 중 성평등 지표로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추천</li> </ul>
2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세부 지표 항목의 중요도와 적절함 정도를 7점 척도로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한 사회참여</li> <li>- 여성의 인권과 복지</li> <li>- 성평등한 의식과 문화</li> </ul> </li> </ul>

#### 4) 응답자의 특성

전문가 조사 대상 모집단은 분야별로 선정한 71명으로 구성됐으며, 1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모두 46명이고, 2차 조사 시 모집단인 71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차 조사 응답자와 2차 조사 응답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응답자(전문가)의 특성

구분	항목	1차 조사		2차 조사	
		표본수 (건)	비율 (%)	표본수 (건)	비율 (%)
합계		46	100.0	46	100.0
전공 혹은 업무관련 분야	경제·경영	1	2.2	1	2.2
	정치·여성의 세력화 (women's empowerment)	4	8.7	3	6.5
	교육·직업 훈련	10	21.7	9	19.6
	사회복지	18	39.1	17	37.0
	보건(건강·영양)	2	4.3	3	6.5
	안전(범죄·재난)	1	2.2	0	0.0
	보육	0	0.0	0	0.0
	문화	1	2.2	1	2.2
	법·행정·사회정책	7	15.2	10	21.7
	도시계획(건축·조경)	1	2.2	1	2.2
	기타	1	2.2	1	2.2
전공 혹은 업무관련 경력	5년 미만	7	15.2	5	10.9
	5년 이상~10년 미만	4	8.7	6	13.0
	10년 이상~15년 미만	6	13.0	6	13.0
	15년 이상~20년 미만	8	17.4	10	21.7
	20년 이상~25년 미만	13	28.3	13	28.3
	25년 이상	8	17.4	6	13.0

## 2.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 1) 기존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 분석

#### (1) 경제활동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역성평등지표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차’와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상용근로자의 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지역 전문가들은 우선, **성별 임금 격차 측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정도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 생각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파악할 것인지, 동종 업계 종사자별로 임금의 격차를 파악해 성평등한 정도를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있었다.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한 것이었다.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가, 즉 고용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상용직이라는 용어의 함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상용근로자 안에는 무기계약직도 있을 수 있고, 1년 이상 계약되어 있는 계약직일 수도 있어서 상용근로자가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를 세분하여 성비를 도출하거나 또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려면 대체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업자 수(구직자)를 포함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아니라 고용률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경력단절여성을 파악하는 것이 성평등함을 측정하는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년 6월 5일 제정)』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제2조 정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혼인과 출산 및 양육과만 연계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것이다. 출산과 양육 등 전형적인 여성의 성역할과 연관이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이해나 대응은 현 법률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1차 조사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연계해 사고하는 ‘불평등한 가정’에 대해 지적하고 혼인을 전제로 한 경력단절 여성 비율 산출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경제활동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성별 임금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현황 파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li> <li>▪ 업계 통합 임금 격차 파악과 업종별, 근무기간별 임금 격차 파악 방법 차이 논의 필요</li> </ul>
고용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직’ 이라는 용어의 함정</li> <li>▪ 무기계약직, 1년 이상 계약직 등 상용직근로자에 포함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대한 별도 파악 필요</li> <li>▪ 근무(근속)기간 파악의 중요성 강조</li> <li>▪ 고용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 파악 필요</li> </ul>
경제활동참가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자(구직자)가 포함된 경제활동참가율 대신 고용을 파악이 더 적절</li> </ul>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출산과 양육)’ 에 근거한 경력단절 현황 파악은 부적절</li> <li>▪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경력단절 현황 파악 필요</li> </ul>

경제활동 영역의 기존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들을 자유롭게 추천할 것을 제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고용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강조하고 관련 지표들을 추천했다. 특히 ‘근무(근속) 기간’ 과 고용안정성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비’ 에 대한 추천이 많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경제활동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경제활동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노동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참가 지속 기간</li> <li>▪ 현 직장 근무기간</li> </ul>
고용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성비</li> <li>▪ 비정규직 성비</li> <li>▪ 고용률</li> </ul>
취업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 어려움/비취업 이유</li> <li>▪ 취업 시 성차별적 관행 경험 여부</li> <li>▪ (여성)창업의 어려움</li> </ul>
양질의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만족도</li> <li>▪ 고소득/저소득 직종 남녀 종사 비율</li> <li>▪ 여성의 노조 가입 비율</li> </ul>

## (2) 의사결정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기존 의사결정 분야 지역성평등지표에는 ‘광역 및 기초 의원의 성비’ ‘5급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직 성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의 성비’ 로 구성돼 있다. 의사결정분야 지표에 대해 대전 지역 전문가들은 **조직 내에서 여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관리직의 성 격차를 파악하되, 파악 대상의 범위를 민간기업을 포함한 여러 조직과 단체(정당)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기관장 여성 비율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모든 위원을 포괄하는 지표보다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 의사결정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직 위원 대상 성비 파악</li> <li>▪ 주요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파악이 필요</li> <li>▪ 인사, 예산, 기획, 개발 등 영향력이 큰 위원회를 중심으로 파악</li> <li>▪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성비 파악</li> </ul>
관리직 비율의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별도 파악 필요</li> <li>▪ 기관(조직) 내 여성의 승진 현황에 대한 파악 필요</li> </ul>
여성의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산하 기관장의 성비</li> <li>▪ 주요 정당 여성 비례대표 비율 파악 필요</li> </ul>

의사결정 영역의 기존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들을 자유롭게 추천할 것을 제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사회를 보다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보다 주목했다. 단순히 관리직 비율을 측정하는 것보다, 실질적 의사결정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의사결정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7]와 같다.

**[표 4-7] 의사결정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기획 등 지자체 산하 주요위원회 위촉직 성비</li> <li>▪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성비</li> </ul>
여성의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산하 기관장 비율</li> <li>▪ 주요 정당 비례대표 성비</li> <li>▪ 지역 내 기업 대표 성비</li> </ul>

### (3) 교육·직업훈련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기존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 지역성평등지표는 ‘평균교육년수의 성비’와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진학률 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 직업훈련 영역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지표 등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무용한 지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거나 동등해지면서 고등교육 수혜 및 평균교육년수에 대한 성 격차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지역 전문가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교육과 훈련 관련한 지표에 대한 자율 의견으로 고등교육진학이나 평균교육년수에 대한 지표 점검의 중요성 보다는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를 점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했고, 특히 직장 내 훈련, 즉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육아중인 여성 등)에 대한 교육 수요 파악과 기회 제공도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과 직업훈련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8]과 같다.

**[표 4-8]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자발적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자발적 훈련프로그램 참여 성비는 여성의 직업역량강화 기회를 의미하므로 점검이 필요</li> <li>▪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조직 내 지위 확보 등 여성의 대표성 향상 등에도 기여</li> </ul>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li> <li>▪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성 격차 파악의 필요성</li> </ul>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교육과 직업훈련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직업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참여 성비</li> <li>▪ 자발적 직업훈련 참여 성비</li> </ul>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성 격차</li> <li>▪ 장애 여성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과 만족도</li> </ul>

## 2) 추천 지표에 대한 중요성·적절성 분석

### (1) 경제활동

1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기존 지표에 추가 및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중요성 및 적절성 측정 조사를 실시했다.

경제활동 영역은 ‘성별 고용률’ ‘산업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산업에 따른 성별 비정규직 비율’ ‘성별 근속 기간’ ‘하는 일(직업)에 대한 만족도 성비’ ‘관리직 성비’ 로 구성됐다.

고용률 등의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10]와 같이 답했다.

**[표 4-10] 고용·임금격차·비정규직 비율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고용률		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율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1(2.2)	1(2.2)	0(0.0)	0(0.0)	0(0.0)	0(0.0)
2	0(0.0)	0(0.0)	0(0.0)	0(0.0)	2(4.3)	1(2.2)
3	2(4.3)	0(0.0)	1(2.2)	0(0.0)	1(2.2)	0(0.0)
4	5(10.9)	2(4.3)	5(10.9)	3(6.5)	3(6.5)	3(6.5)
5	5(10.9)	5(10.9)	8(17.4)	4(8.7)	4(8.7)	5(10.9)
6	14(30.4)	16(34.8)	14(30.4)	14(30.4)	16(34.8)	15(32.6)
7	19(41.3)	22(47.8)	18(39.1)	25(54.3)	20(43.5)	22(47.8)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고용률, 임금격차, 비정규직의 비율 지표 모두 적절성 보다는 중요성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인다.

위 세 지표들 중 가장 적절성이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산업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 지표였다. 중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는 ‘산업에 따른 임금격차’ 지표로, 임금격차 지표는 전체 3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중요성 평가 점수를 받았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근속기간 등의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11]과 같이 답했다.

**[표 4-11] 근속기간·직업 만족도·관리직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근속기간		직업 만족도		관리직 성비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0(0.0)	1(2.2)	1(2.2)	0(0.0)	0(0.0)
2	0(0.0)	0(0.0)	0(0.0)	0(0.0)	2(4.3)	0(0.0)
3	2(4.3)	0(0.0)	2(4.3)	2(4.3)	2(4.3)	1(2.2)
4	6(13.0)	6(13.0)	11(23.9)	11(23.9)	2(4.3)	3(6.5)
5	11(23.9)	9(19.6)	19(41.3)	14(30.4)	6(13.0)	7(15.2)
6	16(34.8)	16(34.8)	7(15.2)	10(21.7)	20(43.5)	16(34.8)
7	11(23.9)	15(32.6)	6(13.0)	8(17.4)	14(30.4)	19(41.3)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적절성면에서나 중요성면에서나 모두 평가 점수가 낮았다. 근속기간보다는 여성 관리자가 조직 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가 더 적절하고도 중요한 지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 (2) 대표성 및 의사결정 영역

대표성 및 의사결정 영역은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지자체 산하 기관장 성비’ ‘광역시 주요 상설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주민자치위원장 성비’ 로 구성됐다.

여성의 정치 진출, 여성 고위직 비율 등의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12]와 같이 답했다.

**[표 4-12] 여성의원·고위직 공무원·기관장 성비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지자체 산하 기관장 성비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1(2.2)	1(2.2)	0(0.0)	0(0.0)	1(2.2)	0(0.0)
2	1(2.2)	0(0.0)	3(6.5)	0(0.0)	3(6.5)	2(4.3)
3	3(6.5)	0(0.0)	1(2.2)	0(0.0)	2(4.3)	0(0.0)
4	3(6.5)	2(4.3)	3(6.5)	3(6.5)	5(10.9)	4(8.7)
5	10(21.7)	13(28.3)	15(32.6)	15(32.6)	10(21.7)	12(26.1)
6	13(28.3)	13(28.3)	7(15.2)	9(19.6)	10(21.7)	12(26.1)
7	15(32.6)	17(37.0)	17(37.0)	19(41.3)	15(32.6)	16(34.8)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을 비롯한 위 세 지표들은 성평등 현황을 파악을 위해 적절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에서 30개 지표들 중 중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위 세 지표중 특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 지표는 적절함과 중요함의 순위 변동이 컸다. 적절함에 대한 평가는 14위로 30개 지표들 중 중간 정도를 차지했으나, 중요성 면에서는 8위로 상대적으로 꽤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특징을 보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여성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등의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13]과 같이 답했다.



**[표 4-13] 위원회 성비 · 자치위원장 성비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광역시 주요 상설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주민자치위원장 성비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0(0.0)	1(2.2)	1(2.2)
2	1(2.2)	0(0.0)	4(8.7)	1(2.2)
3	2(4.3)	0(0.0)	0(0.0)	0(0.0)
4	6(13.0)	5(10.9)	13(28.3)	10(21.7)
5	12(26.1)	8(17.4)	12(26.1)	14(30.4)
6	12(26.1)	19(41.3)	10(21.7)	12(26.1)
7	13(28.3)	14(30.4)	6(13.0)	8(17.4)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단계에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많은 여성들이 봉사의 개념을 가진 단체 참여나 통장 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행정동 주민센터와 긴밀하게 연계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성비를 파악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통로를 장악한 성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성비 지표는 적절성 면에서도 중요성 면에서도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주요위원회 위원의 성비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중요하다고 중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 3. 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

#### 1) 기존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 분석

##### (1) 복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역성평등지표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성비’와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빈곤**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본 조사를 통해 강조했다. 여성 한부모가족과 여성노인가구의 빈곤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정도(혹은 적절함)가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다.

빈곤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현 기준중위소득 대비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복지 영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복지서비스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 서비스 수혜 성비를 파악하는 것은 빈곤한 여성 인구 대비 얼마나 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기관 이용 등 서비스 기관 이용 성비를 파악하는 것은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이용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기회이며, 각 기관별 이용 만족도의 성격 차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수혜자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다.

복지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4]와 같다.

**[표 4-14] 복지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여성의 빈곤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가구주 가구의 현 기준중위소득 대비 도달률 파악은 여성의 실질적 빈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li> <li>▪ 여성 한부모가구의 소득과 평균생활비 파악</li> <li>▪ 고령 여성가구의 생활비 지출 현황 혹은 가계지출현황(항목)의 성 격차(차이 비교)</li> </ul>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만명당 영역별 복지기관의 수</li> <li>▪ 복지 기관 이용 성비 및 복지서비스 수혜 성비 파악</li> </ul>
연금가입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가입자의 성비를 파악하는 것 외에 연금의 실질적 수준(연금액)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li> </ul>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복지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5]와 같다.

**[표 4-15] 복지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여성의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가구주 가구의 현 기준중위소득 대비 도달률</li> <li>▪ 여성 노인가구의 소득과 생활비</li> </ul>
복지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기관 이용 성비</li> </ul>
연금 가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액의 성 격차</li> </ul>

**(2) 보건**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역성평등지표 보건 분야는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스트레스 인지율’ 로 구성돼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건강 측정** 지표의 발굴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성 격차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우울감과 행복감을 기존 사회조사 자료들을 이용해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유사 세부 지표로 ‘스트레스인지율’의 성비를 조사하여 여성과 남성의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성별에 따른 자살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건강유지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돌봄과 가사노동시간, 임금노동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간과 실질적 비용을 성별로 측정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서비스 이용에 있어 성별 격차가 있지 않는지, 보건소 및 의료 기관 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성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과 질병 예방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각기 어떻게 다른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는 정보의 획득이나 예방 접종 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을 포괄하는 예방 비용을 의미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질환이나 질병을 성별로 파악하여 성에 따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건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6]과 같다.

**[표 4-16] 보건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건강관련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건강 인지율의 성 격차 측정의 중요성</li> </ul>
건강관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이 아닌 순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시간 측정</li> <li>▪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과 비용 측정</li> </ul>
정신건강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감이나 행복감이 추상적일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인지율을 측정하여 성별 비교 파악이 필요</li> <li>▪ 성별 자살률 혹은 자살 시도 현황</li> </ul>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보건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7]과 같다.

**[표 4-17] 보건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건강관련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건강기대 수명</li> <li>▪ 주관적 건강 상태 인지 성차</li> </ul>
건강관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 혹은 건강유지 활동 시간</li> <li>▪ 병원이나 보건 서비스 이용률</li> </ul>
정신건강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감 또는 행복감 또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li> <li>▪ 스트레스인지율</li> <li>▪ 자살률</li> </ul>

### (3) 안전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역성평등지표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로 구성돼 있으며, 보통 사회조사에서 수행되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 범죄의 여성 피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에만 한정하지 않고, 최근 **다양한 유형으로 자행되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혐오범죄 등의 피해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율만큼이나 더 중요한 지표는 강력범죄 **재범률**이라고 보고, 지역별 강력범죄 재범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피해자 지원 시설의 수도 중요하지만,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예산이나 방지책**, 교육의 확산과 수준에 대한 측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안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안전 정책 체감도 측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만족도 조사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절차일 수 있음이 강조됐다.

안전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8]과 같다.

**[표 4-18] 안전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하고 새롭게 등장한 여성 대상 범죄(성희롱, 폭력, 혐오범죄 등)에 대한 인식 혹은 불안감 측정</li> </ul>
여성 피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력범죄 재범률 측정은 여성 피해 현황만큼이나 사회적 안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 지표</li> <li>피해자 지원 시설 예산, 이용 만족도 측정</li> </ul>
범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안정 정책(예산 투자)에 대한 만족도 측정</li> <li>범죄 예방 교육 활성화(교육 수혜율) 정도 측정</li> <li>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교육 만족도 측정을 통해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 있으며, 교육 품질 자체의 개선도 이끌어야 함</li> </ul>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안전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9]와 같다.

**[표 4-19] 안전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경우 및 여건(밤길 보행, 성범죄 피해, 교통, 재난 등)에 대한 불안감</li> </ul>
여성 피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li> </ul>
범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 및 공공안전정책에 대한 만족도</li> <li>범죄 및 재난 안전에 대한 교육 수혜율</li> </ul>

## 2) 추천 지표에 대한 중요성·적절성 분석

### (1) 복지

1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기존 지표에 추가 및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중요성 및 적절성 측정 조사를 실시했다.

복지 영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지출항목 성차’ ‘중위소득액 성차’ 로 구성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성비와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20]과 같이 답했다.

[표 4-20] 기초생활수급자·공적연금가입자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0(0.0)	0(0.0)	0(0.0)
2	0(0.0)	0(0.0)	1(2.2)	0(0.0)
3	3(6.5)	1(2.2)	4(8.7)	1(2.2)
4	4(8.7)	3(6.5)	5(10.9)	4(8.7)
5	11(23.9)	9(19.6)	14(30.4)	15(32.6)
6	15(32.6)	18(39.1)	7(15.2)	9(19.6)
7	13(28.3)	15(32.6)	15(32.6)	17(37.0)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성별로 파악하는 것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고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척도 측정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지표는 적절성과 중요성 면에서 모두 10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적연금가입자의 성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 지표가 중요한데 비해 적절함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요성 평점이 적절성 평점 보다 조금 더 높았다.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지출 항목 비교 지표와 성별 중위소득액 비교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21]과 같이 답했다.

**[표 4-21] 고령자 가계부담·중위소득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지출 항목 비교		성별 중위소득액 비교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0(0.0)	0(0.0)	1(2.2)
2	1(2.2)	0(0.0)	2(4.3)	0(0.0)
3	3(6.5)	2(4.3)	2(4.3)	0(0.0)
4	13(28.3)	12(26.1)	11(23.9)	9(19.6)
5	16(34.8)	17(37.0)	12(26.1)	15(32.6)
6	12(26.1)	12(26.1)	12(26.1)	15(32.6)
7	1(2.2)	3(6.5)	7(15.2)	6(13.0)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지출 항목 비교 지표와 성별 중위소득액 비교 지표는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성평등 지표로서 적절성과 중요성 면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고령자의 가계부담지출항목 비교 지표는 중요성 면에서 중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나, 적절성 면에서는 최하위권에 그쳤다.

## (2) 보건

보건 영역은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성차’ ‘건강기대수명 성차’ ‘자살에 의한 사망 성비’ ‘주관적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감 성차’ 로 구성됐다.

건강관련한 삶의 질 등의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22]와 같이 답했다.

[표 4-22] 건강관련 삶의질 · 건강검진 · 건강기대수명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별 비교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건강 기대수명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0(0.0)	1(2.2)	0(0.0)	1(2.2)	1(2.2)
2	0(0.0)	0(0.0)	1(2.2)	2(4.3)	0(0.0)	0(0.0)
3	2(4.3)	0(0.0)	0(0.0)	1(2.2)	2(4.3)	4(8.7)
4	8(17.4)	8(17.4)	11(23.9)	8(17.4)	22(47.8)	17(37.0)
5	11(23.9)	10(21.7)	16(34.8)	12(26.1)	6(13.0)	9(19.6)
6	14(30.4)	16(34.8)	8(17.4)	11(23.9)	12(26.1)	11(23.9)
7	11(23.9)	12(26.1)	9(19.6)	12(26.1)	3(6.5)	4(8.7)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건강 기대수명을 성별 비교하는 것은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적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기대수명은 적절성과 중요성 면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건강검진수검률이나 건강관련한 각종 활동들을 포괄하는 EQ-5D도 적절성과 중요성 면에서 모두 중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 지표와 주관적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감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23]과 같이 답했다.

**[표 4-23] 자살률·행복감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자살에 의한 사망률 성차		주관적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감 성차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1(2.2)	1(2.2)	1(2.2)	1(2.2)
2	0(0.0)	0(0.0)	0(0.0)	0(0.0)
3	3(6.5)	0(0.0)	3(6.5)	1(2.2)
4	16(34.8)	14(30.4)	10(21.7)	9(19.6)
5	11(23.9)	9(19.6)	14(30.4)	13(28.3)
6	9(19.6)	15(32.6)	12(26.1)	14(30.4)
7	6(13.0)	7(15.2)	6(13.0)	8(17.4)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자살률이나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감 측정은 성평등 지표로 적절함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살률의 성별 파악은 중요성 면에서 전체 30개 지표 중 6위를 차지해,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으며, 행복감 지표도 적절성 평가에서보다 중요성 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 (3) 안전

안전 영역은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차’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성폭력 재범률’ ‘가정폭력 재범률’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성차’ 로 구성됐다.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지표와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24]와 같이 답했다.

**[표 4-24] 사회안전 인식·범죄피해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차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0(0.0)	1(2.2)	0(0.0)
2	0(0.0)	0(0.0)	1(2.2)	0(0.0)
3	4(8.7)	1(2.2)	0(0.0)	0(0.0)
4	4(8.7)	4(8.7)	4(8.7)	3(6.5)
5	10(21.7)	8(17.4)	5(10.9)	6(13.0)
6	16(34.8)	18(39.1)	15(32.6)	15(32.6)
7	12(26.1)	15(32.6)	20(43.5)	22(47.8)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지표는 안전 관련한 지표들 중 가장 적절성도 높고 중요성도 큰 지표로 평가됐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의 성차는 중위권 정도의 적절성과 중요성 평가를 받았는데, 불안감이나 범죄 피해 공포는 현실에 기반한 것이진 하지만, 실제 범죄 피해 현황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훨씬 더 성평등 지표로 적절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폭력 재범률 등의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25]와 같이 답했다.

[표 4-25] 성·가정폭력 재범률·범죄예방정책 만족도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성폭력 재범률		가정폭력 재범률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0(0.0)	0(0.0)	0(0.0)	0(0.0)	1(2.2)
2	2(4.3)	0(0.0)	2(4.3)	0(0.0)	1(2.2)	0(0.0)
3	1(2.2)	2(4.3)	0(0.0)	1(2.2)	4(8.7)	1(2.2)
4	8(17.4)	7(15.2)	5(10.9)	5(10.9)	7(15.2)	3(6.5)
5	10(21.7)	10(21.7)	9(19.6)	9(19.6)	7(15.2)	12(26.1)
6	10(21.7)	9(19.6)	14(30.4)	11(23.9)	19(41.3)	19(41.3)
7	15(32.6)	18(39.1)	16(34.8)	20(43.5)	8(17.4)	10(21.7)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성폭력 재범률 보다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성평등 지표로서의 적절성과 중요성 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정폭력 재범률 지표는 전문가들로부터 지표로서의 적절성 면에서도 중요성 면에서도 도 높은 평점을 받았고 전체 지표들 중 순위도 높았다.

폭력 재범률 지표보다 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예방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중요성과 적절성 면에서 20위를 차지했으며, 중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은 성폭력 재범률 보다 다소 낮은 평점을 받았다.

## 4. 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

### 1) 기존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 분석

#### (1) 가족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역성평등지표 가족 분야는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육아휴직자’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사회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부터 구체적인 ‘가사노동시간’ 까지 사적 영역에서의 성역할 부담과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지표가 우리사회 성역할 수행의 불평등한 관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긴 하나, 시간과 휴직현황만으로 가사와 돌봄이 가지는 무게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육아와 (가족)돌봄 관련해 느끼는 **사회적 압박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보육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질적 점검과 만족도 등에 대한 점검 수요도 적지 않았다. 돌봄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견인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 사용 현황을 성별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으며, 육아휴직 외에 가족돌봄이나 돌봄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할 때 가질 수 있는 휴무(직) 권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육아휴직제도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돌봄휴직(parental leave), 대체휴무제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족친화제도의 일환인 각종 제도들의 확산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파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인구학적 입장에서 출생성비는 한 사회의 성별에 대한 태도 혹은 선호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지표라 할 수 있다. 2015년 대전광역시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105.2로

자연 성비에 가까웠지만, 2014년엔 120.5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줬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남아선호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셋째 아가 아니라 둘째 아의 성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유효할지 모른다.

가족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6]과 같다.

**[표 4-26] 가족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가사와 돌봄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와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 필요</li> <li>▪ 가사시간 측정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돌봄시간 측정도 필요</li> <li>▪ 보육 및 돌봄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파악이 중요</li> </ul>
성평등한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아니라 모든 출생아 출생 성비 파악 필요</li> <li>▪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파악의 중요성 재검토 필요</li> <li>▪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 필요</li> </ul>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자 파악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성별에 따라 파악해야 하며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li> <li>▪ 가족돌봄휴직(parental leave)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의 사용 현황 파악도 중요</li> </ul>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가족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27]과 같다.

**[표 4-27] 가족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가사와 돌봄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가족돌봄시간</li> <li>▪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따른 스트레스</li> <li>▪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감</li> <li>▪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li> </ul>
성평등한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출생아 성비</li> <li>▪ 성평등 인식</li> </ul>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돌봄휴직, 대체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사용 현황</li> </ul>

**(2) 문화와 정보**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역성평등지표 여가와 정보 분야는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그리고 ‘인터넷이용률’로 구성돼 있다. 이 분야는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생활 향유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가 시간보다, **여가 활동 내용**에 있어 성 격차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들이 어떠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 그 품질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하며, 여가 활동을 하는 이유 등을 파악하는 것도 여성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여가 활동에 따른 **비용**을 성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과 남성의 여가 활동 품질 차이가 비용 면에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며, 비용의 성 격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가와 정보 교류에 있어 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 했고, 여가와 정보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이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정보취득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와 정보 영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주요 지적과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8]과 같다.

**[표 4-28] 문화와 정보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한 개선의견**

부문	내용
문화여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여가활동 비용의 성 격차 측정 필요</li> <li>▪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측정의 중요성</li> <li>▪ 문화여가이용 시설 현황 및 이용 만족도 측정의 필요성</li> </ul>
정보의 교류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ial Network Service 이용 성비</li> <li>▪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파악과 성별 차이 파악</li> <li>▪ 주요 공공정보 제공 사이트 및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li> </ul>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추천한 문화와 정보 영역의 지표 추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29]와 같다.

**[표 4-29] 문화와 정보 분야 지표 추천 결과**

부문	세부 지표
문화여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여가활동 비용 성 격차</li> <li>▪ 문화여가시설 이용 만족도</li> </ul>
정보의 교류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공공정보 제공 사이트 이용 만족도</li> <li>▪ SNS 이용률</li> </ul>

## 2) 추천 지표에 대한 중요성·적절성 분석

### (1) 가족

1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기존 지표에 추가 및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중요성 및 적절성 측정 조사를 실시했다.

가족 영역은 ‘가사노동시간 성차’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평등 인식 수준 성차’ 로 구성됐다.

가사노동시간 등의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30]과 같이 답했다.

**[표 4-30] 가사노동시간·육아휴직·성평등 인식수준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성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사용 성비		성평등 인식 수준 성차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1(2.2)	1(2.2)	0(0.0)	0(0.0)	0(0.0)
2	3(6.5)	0(0.0)	1(2.2)	1(2.2)	2(4.3)	0(0.0)
3	1(2.2)	0(0.0)	2(4.3)	0(0.0)	3(6.5)	0(0.0)
4	3(6.5)	2(4.3)	8(17.4)	7(15.2)	2(4.3)	3(6.5)
5	2(4.3)	5(10.9)	3(6.5)	7(15.2)	6(13.0)	6(13.0)
6	13(28.3)	13(28.3)	14(30.4)	10(21.7)	13(28.3)	14(30.4)
7	24(52.2)	25(54.3)	17(37.0)	21(45.7)	20(43.5)	23(50.0)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시간 성별 비교 지표는 성평등 지표로서의 적절성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가사노동시간 지표는 모든 지표 중 적절성 점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중요성 면에서도 3위를 차지해, 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지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의 성비 지표는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성 면에서는 중간 정도의 평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인식 수준의 성별 차이 파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절하고도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성평등 인식 수준 성차 지표는 중요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적절성 면에서도 평점이 상위권에 있는 지표로 나타났다.

## (2) 여가문화생활

여가문화생활 영역은 ‘여가 시간 성차’와 ‘여가생활 만족도 성차’로 구성됐다.

여가 시간 사용 면에서 나타나는 성 격차 지표와 여가생활 만족도 차이 지표가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가와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도록 요구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래 [표 4-31]과 같이 답했다.

**[표 4-31] 여가시간·여가만족도 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 건/%)

구분	성별 여가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성차	
	적절성	중요성	적절성	중요성
1	0(0.0)	1(2.2)	0(0.0)	1(2.2)
2	2(4.3)	0(0.0)	1(2.2)	0(0.0)
3	2(4.3)	0(0.0)	3(6.5)	0(0.0)
4	9(19.6)	10(21.7)	9(19.6)	12(26.1)
5	16(34.8)	13(28.3)	16(34.8)	16(34.8)
6	8(17.4)	14(30.4)	10(21.7)	10(21.7)
7	9(19.6)	8(17.4)	7(15.2)	7(15.2)
계	46(100.0)	46(100.0)	46(100.0)	46(100.0)

주. 척도는 1부터 7까지로 구성됐으며, 숫자가 클수록 강한 동의정도를 의미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여가와 관련한 시간 지표와 만족도 지표는 전문가들로부터 그리 높지 않은 적절성 및 중요성 점수를 받았다. 여가시간의 성차와 여가생활 만족도 성차 지표 모두 평점 상 하위권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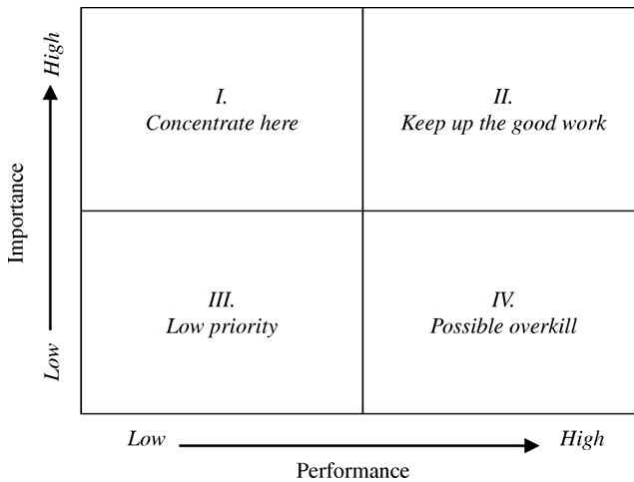
여가 시간 지표가 만족도 지표보다는 적절성과 중요성 면에서 모두 평점이 조금 더 높았다.

## 5.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IPA 결과

### 1) IPA 개요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의 최종 목적은 지역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수정의견을 낸 성평등 지표 항목들에 대한 적절함과 중요함을 비교하고, 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보는 데 있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선택 가능한 여러 지표 항목들 중에서 우선 어디에 더 집중하고 덜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IPA의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적절성과 중요성을 파악해보면,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들 중 우선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지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IPA 사분면 제시의 예

위 [그림 4-1]는 IPA 후 제시된 사분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I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의미한다. II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III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관리의 우

선 순위를 낮춰도 무방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IV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서 불필요한 과잉 관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IPA 알고리즘을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으로 바꾸어 개별 지표 항목들의 향후 사용 전망을 예측해보고자 했다.

아래 [표 4-32]는 30개 성평등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평점에 따른 순위를 제시한 것이다.

적절성 면에서 ‘**가사노동시간**’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요성 면에서는 ‘**산업에 따른 임금격차**’ 항목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산업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산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률’ 항목 순으로 적절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 기대수명’,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지출항목 비교’, ‘주민자치위원장 비율’ 등의 항목은 적절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중요성 면에서 살펴보면, ‘성평등 인식수준’, ‘가사노동시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고용률’ 항목이 높은 평점을 보였으며, ‘건강 기대수명’,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지출항목 비교’, ‘하는 일(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이 중요성 면에서는 점수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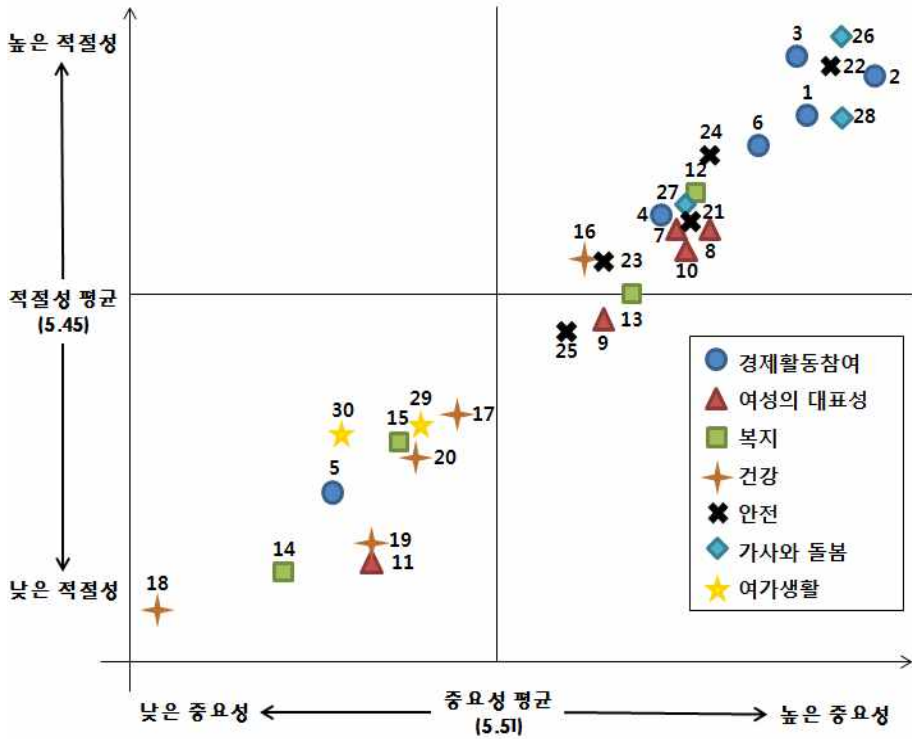
적절성 점수에서 중요성 점수를 빼 값은 적절성에 따라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인데, 한 항목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값이라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가장 큰 양(+)의 값을 나타낸 항목은 ‘건강 기대수명’으로써 적절성에 비해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음(-)의 값을 나타낸 항목은 ‘성평등 인식 수준’ 으로 적절성에 비해 중요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4-32] 적절성·중요성 평가 및 순위

항목	적절성 평균	적절성 순위	중요성 평균	중요성 순위	적절성	적절성
					- 중요성 차이	- 중요성 순위
고용률	5.85 ± 1.382	5	6.17 ± 1.141	5	-0.33	9
산업에 따른 임금격차	5.93 ± 1.104	4	6.33 ± 0.896	1	-0.39	2
산업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	5.98 ± 1.308	2	6.15 ± 1.095	6	-0.17	27
근속기간	5.61 ± 1.125	11	5.87 ± 1.024	15	-0.26	17
하는일(직업)에 대한 만족도	5.00 ± 1.211	26	5.15 ± 1.299	28	-0.15	28
관리직 비율	5.78 ± 1.298	7	6.07 ± 1.020	7	-0.28	12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59 ± 1.469	13	5.89 ± 1.178	14	-0.30	10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59 ± 1.439	14	5.96 ± 1.010	8	-0.37	5
지자체 산하 기관장 비율	5.39 ± 1.626	19	5.74 ± 1.273	18	-0.35	8
광역시 주요 상설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5.54 ± 1.277	15	5.91 ± 0.962	12	-0.37	4
주민자치위원장 비율	4.85 ± 1.475	28	5.24 ± 1.303	26	-0.39	3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67 ± 1.175	9	5.93 ± 0.998	10	-0.26	15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5.46 ± 1.394	18	5.80 ± 1.108	16	-0.35	7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 지출항목 비교	4.83 ± 1.039	29	5.04 ± 0.988	29	-0.22	20
중위소득액	5.11 ± 1.303	24	5.30 ± 1.152	24	-0.20	25
건강관련삶의질(EQ-5D)	5.52 ± 1.169	17	5.70 ± 1.051	19	-0.17	26
건강검진 수검률	5.17 ± 1.322	21	5.41 ± 1.343	21	-0.24	18
건강 기대수명	4.74 ± 1.219	30	4.78 ± 1.281	30	-0.04	30
자살에 의한 사망률	4.89 ± 1.303	27	5.24 ± 1.251	25	-0.35	6
주관적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감	5.09 ± 1.279	25	5.33 ± 1.248	23	-0.24	19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5.61 ± 1.220	12	5.91 ± 1.029	12	-0.30	10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5.96 ± 1.349	3	6.22 ± 0.917	4	-0.26	16
성폭력 재범률	5.52 ± 1.394	16	5.74 ± 1.255	17	-0.22	21
가정폭력 재범률	5.76 ± 1.286	8	5.96 ± 1.134	8	-0.20	23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5.37 ± 1.306	20	5.65 ± 1.178	20	-0.28	13
가사노동시간	6.02 ± 1.453	1	6.24 ± 1.158	3	-0.22	22
육아휴직 사용	5.63 ± 1.525	10	5.91 ± 1.262	11	-0.28	14
성평등 인식 수준	5.85 ± 1.429	6	6.24 ± 0.923	2	-0.39	1
여가시간	5.15 ± 1.316	22	5.35 ± 1.215	22	-0.20	23
여가생활 만족도	5.13 ± 1.222	23	5.17 ± 1.198	27	-0.04	29
전체 평균	5.45 ± 0.911		5.51 ± 0.650			

## 2) IPA 결과

지역 성평등 지표로 30개 항목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가를 평가한 결과를 IPA 그래프로 그려, 개별 지표의 상대적 적절성과 중요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적절성과 중요성 IPA 결과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중요하면서도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지표들, 즉 II사분면에 위치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 지표들이 5개로 가장 많다. 그러나 경제활동참여 지표들 가운데에서도 ‘하는 일(직업)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중요성도 낮고 적절성도 낮은 III사

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에 대한 주관적 체감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참여 다음으로 II사분면에 많은 지표는 ‘안전’ 관련한 지표들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가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적절성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재범률’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지표도 II사분면에 위치했다. 안전 관련한 지표들 중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중요성과 적절성 양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사와 돌봄 관련한 지표들이 II사분면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모든 지표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도와 적절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성평등 인식 수준의 성차’ 지표도 II사분면 안에서 매우 높은 적절성과 중요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대표성’ 관련한 지표들은 3개의 지표가 II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로 위치가 비슷하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여성 광역 및 기초 의원 비율’ ‘광역시 주요 상설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지표가 II사분면에 위치했다.

‘건강 기대수명’ 지표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가장 중요성도 낮고 적절성도 낮은 III사분면에 위치해 있다. 30개 지표들 중 가장 순위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성평등 지표로서의 활용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건강과 관련한 지표들이 4개나 III사분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수검률이나 자살, 삶에 대한 만족감 등 정신건강 지표들은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리 중요하고도 적절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었다.

노령인구의 빈곤 성차를 상세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 지출항목 비교’ 지표도 적절성과 중요성에서 모두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대표성은 중요한 성평등 지표 영역이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성비’ 지표는 전문가들로부터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이 지표도 Ⅲ사분면의 낮은 위치를 차지했다.

여가생활 관련한 지표 2개 모두 Ⅲ사분면에 위치했다. ‘여가시간’과 ‘여가생활만족도’ 지표 모두 성평등 지표로서의 중요성과 적절성을 높게 확보하지 못한 지표로 평가됐다.

## 6. 기존 성평등 지표에 대한 총괄 의견 및 기타 제안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혹은 성 격차가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 **‘성별 분리 직종이나 고용형태, 승진기회의 차별로 인한 임금의 격차’**를 꼽았다.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승진 기회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임금의 차이가 여성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한) 임금격차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성 격차가 가장 심한 부분은 **‘안전’**이었다.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힐 것 같은 재난재해의 위험성도 평소 관련한 훈련이나 지식 정보 취득의 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성관련 범죄의 위험성은 다양한 범죄 방법의 발생과 더불어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도 매우 중요한 성평등 현황 측정 지표로 논의되었다. 가사보다 돌봄이, 아동 돌봄뿐 아닌 노인과 병자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더 과중하기 때문에 돌봄 관련한 지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돌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과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여성 경력 단절은, 많은 경우 돌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

고, 또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과정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강력하게 있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 대전이라는 지역 여건상 수도권 여성들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역, 지방이라는 특수성은 고용과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도 관련이 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의회 구성의 여성 비율이 대전시는 계속 향상되고 있으나, 2014년 겨우 31%를 넘겼을 따름이고, 선출보다는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여성 정치인의 지역 토대는 약하고, 정치 외 정책결정 및 제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지역엔 여성 전문가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정책결정과정이나 제안과정에 활용하는 노력은 여전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성평등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크게 계량적 지표와 주관적(인지) 지표로 구분해 생각할 때, 어떤 형식의 지표가 더 정확하게 지역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란 물음에 전문가들의 다수(약 50%)는 양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객관적 지표가 더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객관적 통계 지표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고, 타 지역 혹은 타 국가와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주관적 지표들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심해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들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주관적 인지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성의 삶을 파악할 때 주관적 지표들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과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은 똑같이 임금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삶과 생각 그리고 요구가 다르다는 면에서 이들을 위한 성평등 정책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그래서 성평등에 대한 ‘체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인지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5장

# 대전시 성평등 지표 제안



## 5장 대전시 성평등 지표 제안

1·2차 연구 결과 및 2017년 전문가 조사를 통한 ‘통합적 대전 성평등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첫째, 통합적 대전 성평등 지표 구성은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영역과 지표 구성을 기준으로 연계한다. 둘째, 지역 단위로 객관적 통계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대전시 사회조사 및 대전세종연구원, 기타 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인지 혹은 주관 지표로 대체한다. 셋째, 지역 전문가 집단이 대전의 성평등 현황 인식에 근거해 제안한 중요하고도 적절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기존의 지역 성평등 지수 산출 지표 체계를 보완하고 수정한 ‘통합적 대전 성평등 지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기존 지역성평등지수와 통합 대전시 성평등 지표 비교

구분 정책 영역	기존 성평등 지표		통합적 대전 성평등 지표			
	분야	지표	분야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경제활동참여	성별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비정규직 성비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직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광역 및 기초 의원 성비			
		관리직 비율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교육과 직업훈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비율	여성의 대표성	광역시 주요 상설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평균 교육년수		지자체 산하 기관장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권자 성비		
여성의 인권과 복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복지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보건	건강 기대수명 성차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성차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차	
	안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폭력 재범률	
	성평등 의식과 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성평등한 생활	가사노동시간 성차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돌봄노동시간 성차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 사용 현황			
육아휴직자			성평등 인식 수준 성차			
문화와 정보		여가시간	문화와 여가	여가·문화생활 향유 소비(비용) 성차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1·2차 연구 결과와 이번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대전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지표보다 **안전분야**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의 성평등 지수 산출 결과는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안전분야 지수 산출 결과는 2015년 자료에 근거했을 때 악화됐다. 특히 강력범죄 여성 피해 비율이 증가하여 범죄 피해 예방 및 안전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따라서 안전분야 지표를 강화하여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표 체계에서 변화된 부분은 교육 관련 지표의 축소다. 지역의 전문가들은 교육년수 혹은 평생교육참가현황 지표가 더 이상 의미 없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남성과 같거나 근소하게 앞지르는 현 상황에서 교육년수 파악은 성평등 현황 파악에 중요하지 않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 현황 역시 여성 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

경제활동 관련해서는 고용률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여성의 대표성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성비 지표가 추가되었다. 문화와 여가활동분야 지표는 축소되었는데, 여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가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이 더 중요한 측정 기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비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교체했다.

건강관련한 지표는 단순히 기대여명을 점검하기 보다는 ‘건강한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정신건강측면에서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를 추가했다.

가족과 관련한 지표들은 성평등한 생활 분야를 신설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델파이 전문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성평등 인식의 성차** 지표를 추가했다.

## 참고문헌

- 강맹훈·송혜승·이명훈(2017), “도시재생사업 평가요소에 대한 주민-전문가 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설계> 제18권 3호. 45-59.
- 경중수·조원길(2014), “델파이 조사방법을 활용한 주요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 방향도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3호. 215-233.
- 고보혜·이효빈(2016), <광주지역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민말순(2012), <경남 성평등 수준 제고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박경준(2008), “리얼타임 델파이(Real-time Delphi)기법: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국토> 2008년 3월. 132-139.
- 박영주·성지혜·최세정·김소정(2015), <대구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1)-성평등 지수분석 및 실태를 중심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
- 배은경(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8권 1호: 7-41.
- 신경아(2016),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 제32권 4호. 1-36.
- 윤은기(2011), “삶의 질 측정지표와 델파이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논문집> 2011년 12월. 1-24.
- 임 혁(2007),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 질 측정지표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년 11월. 141-159.
- 주재선·김태홍·전기택·한진영(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주혜진(2015),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 지표 영역 선정>, 대전발전연구원.
- 주혜진(2016),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 인지지표의 활용과 측정>, 대전세종연구원.
- 홍미영·임현정·조한나(2016), <부산지역 성평등지표 분석과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미희(2014),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부록

### 부록 1. 조사설문지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0%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의 성평등 실태를 측정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전형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II-계량·인지 지표의 통합과 활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성평등 지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전문가 조사는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는 성평등 지표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조사기간 : 1차 - **2017년 8월 25일(금) ~ 9월 4일(월) [11일간]**  
2차 - 추후 공지(9월 초 예정)
- ▷ 조사방법 : 이메일 및 모바일(문자메시지) 조사
- ▷ **1차 및 2차 조사를 모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5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설문 종료 페이지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해 주시면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본 조사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이 보장되며,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조사시행 : 주식회사 세종리서치(☎1688-7556)
- 문 의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혜진(☎042-530-3522)

#### [연구개요]

추진년도	1차년도 연구(2015)	2차년도 연구(2016)	3차년도 연구(2017)
과제명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 - 지표 영역 선정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I - 인지지표의 활용과 측정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II - 계량·인지지표의 통합과 활용
목적	지역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한 계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 가능한 지표 제안	지역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한 인지적이고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는 지표 제안	지역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한 계량지표와 인지지표의 통합
주요내용	전문가대상 조사 (FGI, AHP) 지표별 중요도 (가중치) 산출 통계 산출이 가능한 계량 지표를 중심으로 한 지표 제시	시민대상 조사 (SURVEY)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체감 지표 발굴	전문가대상 조사 (DELPHI) 성평등 지표로 적절하면서 중요한 계량·인지 지표 도출

시작하기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17%

### A. 기존 성평등 지표에 대한 수정 혹은 추천

먼저,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 체계와 1·2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안·보완된 지표들의 예시를 보고 수정·보완 혹은 추가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A-1] 성평등한 사회참여

##### \* [A-1-1] 영역과 지표 : 경제활동

기존 지표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 · 보완의견 예시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상용 근로자 비율	비취업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 고용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  
↓

##### \* [A-1-2] 영역과 지표 : 의사결정

기존 지표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 · 보완의견 예시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주요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  
↓

##### \* [A-1-3] 영역과 지표 : 교육·직업 훈련

기존 지표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 · 보완의견 예시
평균 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주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  
↓

다 음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33%

### A. 기존 성평등 지표에 대한 수정 혹은 추천

먼저,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 체계와 1·2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안·보완된 지표들의 예시를 보고 수정·보완 혹은 추가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A-2] 여성의 인권과 복지

##### \* [A-2-1] 영역과 지표 : 복지

기존 지표 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 · 보완의견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 연금 가입자 비율	고령 여성의 소비지출액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 \* [A-2-2] 영역과 지표 : 보건

기존 지표 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 · 보완의견 예시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감 또는 우울감 건강유지활동 비용

\*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도구로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단계까지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응답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측정함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 \* [A-2-3] 영역과 지표 : 안전

기존 지표 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 · 보완의견 예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흉악법)피해자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수 안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다 음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50%

### A. 기존 성평등 지표에 대한 수정 혹은 추천

먼저,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 체계와 1·2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안·보완된 지표들의 예시를 보고 수정·보완 혹은 추가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A-3] 성평등 의식과 문화

\* [A-3-1] 영역과 지표 : 가족

기존 지표 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보완의견 예시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가족돌봄시간 영아전담·시간제·시간연장형 등 다양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시설 비율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 [A-3-2] 영역과 지표 : 문화·정보

기존 지표 내용	1,2차년도 연구에 의한 수정·보완의견 예시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여가(문화)활동 비용 사회적 관계 형성 현황(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분석 정보접근 체감도(만족도)

기존 지표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혹은 추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답변을 적어주세요

다음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67%

### B. 총괄의견

페이지 하단의 지표 총괄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B-1]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대전시민의 삶 중 어느 분야에서 남녀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 혹은 성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 여성들이 남성만큼 받고 있는가 (성별 임금 차이)  
 얼마나 많은 지역 여성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 (성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역 여성 비율 (성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지역 여성은 대전지역이 여성이 살기에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안전에 대한 인식)  
 그 외...

답변을 적어주세요

- \* [B-2]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은 객관적 통계(국가공인통계 등)에 근거한 지표가 더 중요/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관적 인지(만족도 등)에 근거한 지표가 더 중요/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 통계 vs. 주관적 인지'에 대한 의견

답변을 적어주세요

[참고] 지표 총괄표

영역과 지표	기존 지표 내용	수정 · 보완의견 예시
<b>성평등한 사회참여</b>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 격차 성용 근로자 비율	비취업 기준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 고용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
의사결정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주요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교육 · 직업 훈련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주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b>여성의 인권과 복지</b>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공적 임금 가입자 비율	고령 여성의 소비지출액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감 또는 우울감 건강유지활동 비용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총약법)피해자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수 안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
<b>성평등 의식과 문화</b>		
가족	가사노동시간 셋째 이상 출생 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용직자	가족돌봄시간 영아전담 · 시간제 · 시간연장형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시설 비율
문화 · 정보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여가(문화)활동 비용 사회적 관계 형성 현황(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분석 정보접근 채널도(만족도)

다음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83%

### C. 응답자 정보

\* [C-1] 귀하의 전공 혹은 업무 관련 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경제·경영
- ② 정치·여성의 세력화(women's empowerment)
- ③ 교육·직업 훈련
- ④ 사회복지
- ⑤ 보건(건강·영양)
- ⑥ 안전(범죄·재난)
- ⑦ 보육
- ⑧ 문화
- ⑨ 법·행정·사회정책
- ⑩ 도시계획(건축·조경)
- 기타

\* [C-2] 귀하의 전공 혹은 업무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적어 주십시오.(예, 약 5년이면 '5')

숫자로 적어주세요

다음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100%

### 답례품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설문 조사 진행 및 답례품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열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전세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3.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조사 완료 후 1개월간 보유하고 즉시 파기합니다.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설문조사 및 답례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아래 동의여부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 \* 성명

답변을 적어주세요

#### \* 휴대전화 번호(예, 010-XXXX-YYYY)

답변을 적어주세요

#### \* 동의여부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100%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차 조사도 꼭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가 기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2차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의 성평등 실태를 측정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전형 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II-계량·인지 지표의 통합과 활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사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기존 성평등 지표에 대한 수경과 보완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대전시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하고도 중요한 지표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선정해 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이 보장되며,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 조사는 온라인(이메일)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진행되고, 조사 설문은 총 11쪽(실조사 8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사시행 : 주식회사 세종리서치(☎1688-7556)

○ 문 의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혜진(☎042-530-3522)

[연구개요]

구 분	1차년도 연구(2015)
과 제 명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 - 지표 영역 선정
목 적	지역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한 계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 가능한 지표 제안
주요내용	전문가 대상 조사(FGI, AHP) 지표별 중요도(가중치)산출 통계 산출이 가능한 계량 지표를 중심으로 한 지표 제시
구 분	2차년도 연구(2016)
과 제 명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I - 인지지표의 활용과 측정
목 적	지역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한 인지적이고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는 지표 제안
주요내용	시민 대상 조사(SURVEY)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체감 지표 발굴
구 분	3차년도 연구(2017)
과 제 명	대전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II - 계량·인지지표의 통합과 활용
목 적	지역 성평등 수준 측정을 위한 계량지표와 인지지표의 통합
주요내용	전문가 대상 조사(DELPHI) 성평등 지표로 적절하면서 중요한 계량·인지 지표 도출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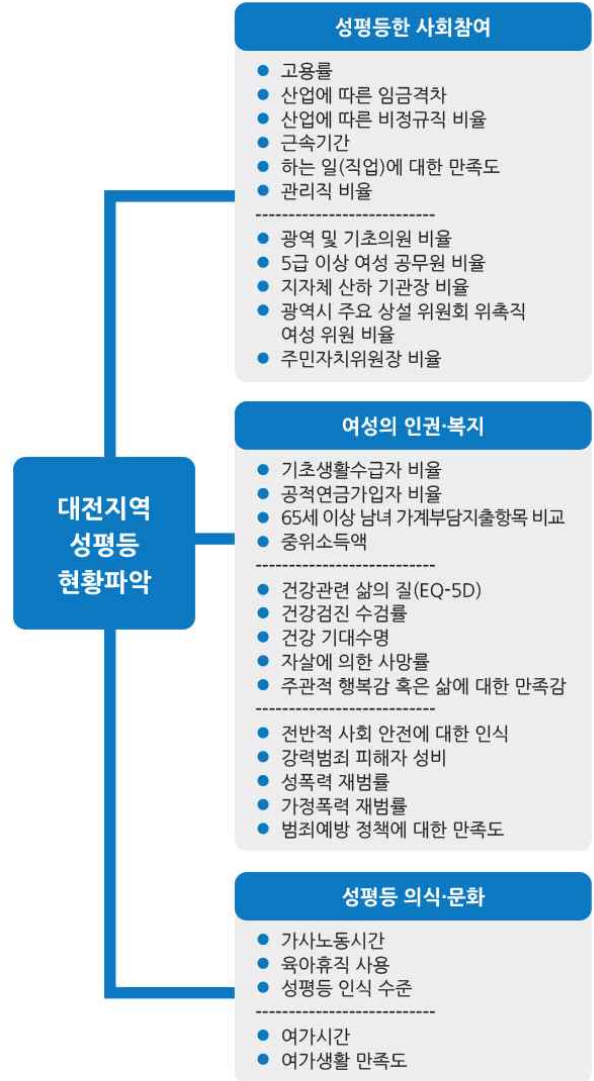
1/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2차조사

### 지표 구성 체계

본 조사는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지표 구성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묻는 조사입니다. 물고자 하는 지표 (문항) 구성의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뒤로

다음

2/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1. 성평등한 사회참여 분야 (1)

귀하의 답변에 따라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항목별 가중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항목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지 순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성별고용률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산업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산업에 따른 성별 비정규직 비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성별 근속기간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하는 일(직업)에 대한 만족도 성별 비교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관리직 성비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 성평등한 사회참여 분야 (2)

귀하의 답변에 따라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항목별 가중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항목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지 순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성별 지자체 산하기관장 비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광역시 주요 상설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낮다		성별 주민자치위원장 비율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II. 여성의 인권과 복지 분야 (1)

귀하의 답변에 따라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항목별 가중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항목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지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성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성별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65세 이상 남녀 가계부담지출항목 비교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중위소득액 성별 비교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뒤로

다음

5/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II. 여성의 인권과 복지 분야 (2)

귀하의 답변에 따라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항목별 가중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항목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지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별 비교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EQ-5D :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도구로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단계까지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응답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측정함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성별 건강 기대수명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성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 낮다	성별 주관적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감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뒤로

다음

6/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II. 여성의 인권과 복지 분야 (3)

귀하의 답변에 따라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항목별 가중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항목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지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별 비교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성별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성폭력 재범률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가정폭력 재범률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만족도 성별 비교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뒤로 다음 7/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III. 성평등 의식과 문화 분야 (1)

귀하의 답변에 따라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항목별 가중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항목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지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성별 기사노동시간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육아휴직 사용 성비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성평등 인식 수준 성별 비교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뒤로 다음 8/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III. 성평등 의식과 문화 분야 (2)

귀하의 답변에 따라 대전지역 성평등 지표 항목별 가중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항목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한지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가 클수록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여가시간 성별 비교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7점 척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보기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

구분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1	2	3	4	5	6	7
적절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중요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뒤로

다음

9/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IV.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전공 혹은 업무 관련 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① 경제·경영
- ② 정치·여성의 세력화(women's empowerment)
- ③ 교육·직업 훈련
- ④ 사회복지
- ⑤ 보건(건강·영양)
- ⑥ 안전(범죄·재난)
- ⑦ 보육
- ⑧ 문화
- ⑨ 법·행정·사회정책
- ⑩ 도시계획(건축·조경)
- 기타: \_\_\_\_\_

2. 귀하의 전공 혹은 업무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적어 주십시오.  
(예, 약 5년이면 '5') \*

내 답변

뒤로

다음

10/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2차조사

\* 필수항목

### 답례품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대전세종연구원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설문 조사 진행 및 답례품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열람,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전세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휴대전화 번호

3. 수집된 개인정보는 설문조사 완료 후 1개월간 보유하고 즉시 파기합니다.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설문조사 및 답례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아래 동의여부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 답례품 내역  
- 1, 2차 조사 모두 응답 : 5만원권 상품권  
- 1차 조사만 응답 : 3만원권 상품권  
- 2차 조사만 응답 : 2만원권 상품권

1. 성명 \*

내 답변

2. 휴대전화 번호(예, 010-XXXX-YYYY) \*

내 답변

3. 동의여부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뒤로

계속

11/11페이지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 대전형 성평등 지표 개발 2차조사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응답 수정](#)